

1846



1970

나 부 신 전

본문 6 페이지의  
“나부 신전의 복구”참조.

성도의빛 2

1969

1967年 10月 4日

공보부등록 라-932



1853



## 영감의 멧세지

알마 손느

(12사도 정원회 보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달리 대처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자기의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사상가와 학자들은 이를 연구, 조사하고 있으며, 제시된 말씀을 게재한 서적이나 잡지등이 읽혀 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옳은 길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셨던 바울은 복음이란 주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 만드신 성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인류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모든 권리와 권능과 권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편의를 위해서 또는 책임 회피를 하려는 사람이나 그릇된 교사의 망상이나 궤변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변경되거나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복음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준수 사항, 원리나 의식등이 모두 같습니다. 회복된 복음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지상에 나기 이전에도 살았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육체적인 창조물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애 이르는 유일한 길인 거룩한 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5권 제2호

순서

1969년 2월호

권두언 : 종교와 인생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1
필수의 미덕—인내 프랭크린 디. 리차즈 .....	4
나부 신전의 복구 제이 엠. 토드 .....	6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정직 존 에이취. 반덴버그 .....	11
주일학교 : 단순성 로웰 엘. 베니온 .....	12
실화 : 살아계신 아버지 도라 디. 플렉 .....	14
청소년 편 :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온 디. 행크스 .....	15
신을 들메라 제프 홀랜드 .....	16
더 훌륭한 도구는 없다 드웨인 제이. 싸익스 .....	17
상호 부조회 : 보고와 공적 지시사항 벨 에스. 스페포드 .....	18
미혹시의 과제 머린 디. 킬러 .....	21
호랑이를 만났을 때에 존 웨로 라슨 .....	23
미국 동부에 신전이 생기자 알버트 엘. 조벨 이세 .....	25
부록 : 제138차 반 연차대회의 말씀 조셉 필딩 스미스, 알빈 알. 다이어 .....	26
선교부장 멧세지 서 현보 .....	33
지방부장 멧세지 차 중환 .....	34
내외소식 .....	35

어린이 성도의 벗 달팽이 관찰, 달팽이 경주

<연속 탐정소설> 나비단의 비밀(제14회)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2월 1일  
(통권 제43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표지 : 좌상의 나부신전은 스티븐 티. 베이어드의 그림으로서 건축 초기의 것이며 아래의 것은 19세기의 화가 후레드릭 피어시의 폐허가 된 신전의 그림입니다. 우상의 것은 복구시킨 나부신전의 모습입니다. 6페이지의 제이 엠. 토드의 기사인 "나부신전의 복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와 인생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 : 36 ~ 37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모든 것 중에서 내게 가장 즐겁고 동시에 유용한 것을 택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복된 것 보다도 나는 확고한 종교적인 신념을 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복된 것 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유용한 것은 종교적인 확신임을 모든 인간에게 주지시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 조직된 교회

보통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를 두고 말할 때 이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유리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무관심, 비활동, 불신앙으로 이미 조직된 종교로부터 그들 자신을 멀리하는 층의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유리한 조건이나 기회를 그들 자신이 적용하지 못한 것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의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것은 직접 그 속에서 일해 본다는 것입니

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힘써 노력하며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논의나 꾀변으로도 그것이 쓸데없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조직된 교회에 대한 가치가 있으며 교회는 봉사의 기회와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입증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7:17)

“종교 안에서의 풍요한 삶”이라는 저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입구에 나 있는 넓은 길이 갈라지는 곳에 돌로 지은 커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정문에서 보면 그것은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어떤 학생도 교회를 도의시키고는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돌아서 간다 해도,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학생의 세계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학생들이 가는 길

## 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신성한 것이니...

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 안에 깊이 침투해 있는 하나의 관례이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유산의 일부입니다.”

### 이상적인 집회 장소

사회적인 면에서 교회가 젊은이에게 주는 가장 훌륭한 기회는 이상적인 집회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해 전에 남부지방을 공식 방문하고 있을 때, 남 캐롤라이나 주, 콜럼비아에서 약 20마일 떨어져 있는 쉐터빌 지부에 찰스 에이. 콜리스 지부장과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입법기관에 다니는 사람이 친절하게도 우리를 목적지에 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나는 쉐터빌을 서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시 계획이 철저히 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마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칠을 한 아담하고 조그만 예배당 앞에 멈추자, 콜리스지부장이 “자 다 왔습니다.”하는 말을 듣고 나는 놀랐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두 서너채의 집이 시야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작은 말일성도 예배 장소는 나무 숲 한가운데 완전히 의따로 떨어져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장소는 제가 그들을 만나 기쁜 것처럼 사뭇 즐겁고 명량한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아침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약 200명의 사람에게 잔치가 베풀어 졌습니다. 여러가지 음식이 쌓인 간단히 꾸며진 식탁이 정원에 놓여 있었습니다. 30마일 반경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예배당은 사교, 연구와 영적인 개발을 위한 집회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집회 장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나 또는 국가에서 다같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한 것일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우리는 생활을 해 가고 있는가, 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사교적인 집회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인간에게 “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은 그와 같이 되는 것임”을 가르치는데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종교는 사회의 근본이 된다. 일단 이것이 경멸 당하게 되면 전체의 구조는 안정될 수도, 계속될 수도 없다.”

미국의 시인인 헨리 와즈워스 롱펠로는 “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신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

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 : 1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인간이 좀더 고귀한 삶과 지성적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풍성한 삶을 위해 좀더 부지런히 노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의 생각을 지배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보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며,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는 생활 방법을 택하고자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그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제적인 사실 앞에 머리를 숙이며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절실한 필수 요건을 무시하고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환상적 아니면 무능한 인물이라하여도 과언은 아니며, 조만간 자신이 인색하다고 비웃던 사람에게 구호의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결국 잘 살아본다는 것은 생의 긴 여로에서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며,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 참된 생의 목적

어떤 사람은 단순히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생이란 고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맛보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이란 영원히 만족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의 목적을 이룸을 날리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공허와 환멸이 뒤를 따를 뿐입니다. 단지 부유하게 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심과 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이들이 희망한 바는 찬박과 실망의 잣더미로 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의 참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도, 쾌락도, 명예나 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에 개인이 성장하여 얻게 되는 완전한 인간성에 있습니다.

자녀의 신체적인 외양이 그의 부모를 닮듯이, 모든 인간도 성장하여 영적인 면에서 영원하신 부모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참다운 생은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 친절, 순결, 사랑, 역사, 시, 음악, 꽃, 별, 하나님과 영원한 희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 쾌락, 명

## …헨리 와즈워스 롱펠로

예, 돈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읍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들어있는 신체기관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그 물체는 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즉 생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의 본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 본다면, 인간의 생이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적어도 둘 혹은 그 이상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생의 단계와 영적인 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발전 도상에서 볼 때,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자연법칙에 순종하여 그의 환경에 따라서 살 때 발전하는 것이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자연의 첫째 법칙인 자기 보존 법칙은 이 생의 단계에 있는 개인개인과 모든 인류의 지배적인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기심이 현대의 특성이 되고 말았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근원, 즉 이기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아셨읍니다.

###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의 육체적인 생의 단계는 두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생계와 안위를 위한 투쟁과 (2) 굴복시키려는 성향입니다.

먼저 것은 자연스런 것이며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이단자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번째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타락하여 동물보다 더 낮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이웃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만이 살겠다는 나쁜 생각을 품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의 생을 스스로 엮매게 되어 행복 대신에 고통을, 관대함을 인색함으로, 사랑을 증오로, 인간성을 야수성으로 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천한 생에만 따라 다니는 이 이기적이고 욕심스런 본성이 사회의 지탄을 받기 전에 이 낡은 세상은 어떠한 경험을 해야 하겠읍니까?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은 무한에 대한 그의 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한없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자기 자신 위에 올라서, 자기 주위를 제어하고, 육신과 모든 신체적인 것을 다스려 좀더 높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도록 충동시키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는 본능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로 그리고 앞으로 밀어 주는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 또는 느낌은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이러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차릴 때가 있게 됩니다. 이 영은 모든 인간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를 완전케 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인간은 영적인 화평과 자유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과업에 참여하여 깊은 진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인 루돌프 오이켄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인간이 이 감각적인 현실 세계 밖에 있는 생애에서의 신성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강력한 인간성, 뿌리 깊고 심오한 정신의 향상은 생각해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우리가 진, 선, 미를 어느 정도 추구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순수한 자연 상태에 대하여 우리 자신 안에서 생을 창조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종교적인 확신을 우주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인간의 바람

정상적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알고자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인류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아니면 전혀 무시하는 것일까? 가장 성공적인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가장 훌륭한 삶은 어떤 것일까? 사망이라 불리우는 불가피한 사물은 무엇인가? 그 넘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간의 이러한 바람에 관한 답을 얻으려면 교회에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종교만이 열망하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목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자연에 스며 들어 있는 뜻 깊은 계획이 있는데, 그 중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은 창조의 무한한 영광을 기대하는데 있습니다. 미국인 목사인 도스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성의 보전은 창조에 있어 최고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가는 요셉 스미스가 받은 현대 계시 중에 가장 숭고한 말씀의 한구절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성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자녀를 보살피고 사랑하십니다. 그는 단순히 맹목적인 힘이 아니며 추상적인 권능의 분이 아니며 살아 계시며 감성을 지니신 하나님입니다.

# 필수의 미덕— 인내



프랭크린 디. 리차즈  
(십이사도 보조)

멕케이 대관장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다? 우리는 멕케이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 대관장님과 스미스 형제님의 훌륭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축복과 성령의 감화를 크게 받았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는 중에 주님의 영이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권시대에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면서 이 위대한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훌륭한 계시가 내려졌읍니다.

비록 이 중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지만 이들 계시는 대부분 주어진 당시에나 혹은 후세에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주며 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대한 계시 중의 하나는 1929년 2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성약 제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인간 자녀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에 필요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교리와 성약 4:6)

오늘날과 같이 불안, 억압, 긴장, 가난의 때에는 인내가 필수적인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장애, 지연 혹은 실패에 동요되지 않음. 긴장과 억압을 이겨낼 수 있음. 참을성 있으며 화나는 중에도 관용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 되어있읍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 사도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우

리의 시련과 재난도 우리가 인내로서 대하게되면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며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을 당할 때만이 아니고 건강, 번영, 그리고 행복한 중에서도 인내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중에 얻는 경험은 모두가 인내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 번영, 그리고 행복한 중일수록 우리는 인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를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험 중 가장 큰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그의 많은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지나친 과대망상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1828년 주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 (교리와 성약 10:4)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필요 이상으로 힘든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에게 특별히 도움이되며 영감을 주는 격언은 “지식은 넓게, 전문 분야에선 깊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절한 준비와 다짐이 없으면서도 넓은 분야를 더 넓게 하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의 과업에 충실하면서도 폭 넓은 발전을 기대하며 추구하려 한다면 참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며, 인내란 전전한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인내를 체념과 의욕의 저하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인내가 우리 생활에 위대한 안정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반하여 인내하지 못함은 수시로 두려움, 긴장, 의욕의 저하와 실패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1829년 5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의 형 하이람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주께서는 “……네가 이를 완성하기까지 견딜지어다” (교리와 성약 11:19)고 권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가 성공의 적극적이며 필수적인 힘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가 기도, 신앙, 노력과 결합될 때 인내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보아 우리는 인내의 커다란 가치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숙고 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키우고 그것이 적극적인 힘이 되도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계획하며 현실적인 이상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전한 계획은 숙고, 기도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멕케이 대관장님께서는 숙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커다란 혜택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며, 기분을 조절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회개와 인내가 같이할 때 인내심은 성장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회개, 신앙 그리고 노력과 인내가 결합될 때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장애를 극복

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란 힘써 노력함을 뜻하고 힘써 노력함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함을 뜻합니다.

그랜트 대관장님께서서는 랄프 월도 에머슨(미국 시인)의 다음 말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분투 노력하는 일이 하기에 쉽게 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용이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울타리 밖에 있는 풀이 더 푸른 것과같이 생각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격언에서 이끼가 생애에서 좋은 일을 의미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직분에 인내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며 부름을 크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내를 기르려면 “지나치게 짧은 동안에 많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계신 것을 십분 활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 가구, 기타 중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도 인내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신뢰를 가질 때에 인내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 행복과 성공을 보상으로 안겨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수 년 후에 떠나게 될 선교사로서의 생활에서 뛰어난 활동을 원한다면 계획을 하여야하며 인내로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계획하여 받아나가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중요한 것이며 자신의 직업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자신이 교육을 계획하고 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급한 남녀의 교제는 불행한 결혼을 낳기 쉬우며 이혼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를 택하는 때에는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전 결혼을 위하여 인내하며 충실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전은 여러분이 인내에 영원한 축복을 안겨 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계속적인 인내는 특별히 가정에서 발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야 말로 우리가 가장 인내하기 힘든 곳이니 이곳에서의 인내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끈기있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흐뭇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영장의 어린 아들 옆에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아들은 매우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끈기 있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수영장에 왔으며 아버지는 언제나 인내와 아들의 노력에 대한 흐뭇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로 자녀에게 인생의 교육, 사회적, 도덕적, 지적, 영적 가르침은 물론, 육체적 가르침을 줄 때 몇 번이고 습득할 때까지 언제나 사랑, 인내, 그리고 아

무리 조그만 발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부모들이 활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의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은 다른 모든 인간 활동에서와 같이 방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1831년에 이미 주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 : 33)고 훈계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는 이 훈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가정 복음 교육에서, 가르치는 일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밤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하고 있는 스테이크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석 달마다 한번씩 비회원의 집을 찾아갔었으나 이 년 반 동안 한번도 집 안에는 들어가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간증을 갖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것이 끈기있게 노력한 대가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활동의 여러가지 부면을 숙고하고 많은 인간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내의 가치를 더욱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오해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내는 우리에게 대한 비판이나 질책에 근거가 있던 혹은 없던 간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줍니다. 기분이 이상한 중에서도 관용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다른 뺨을 돌려 때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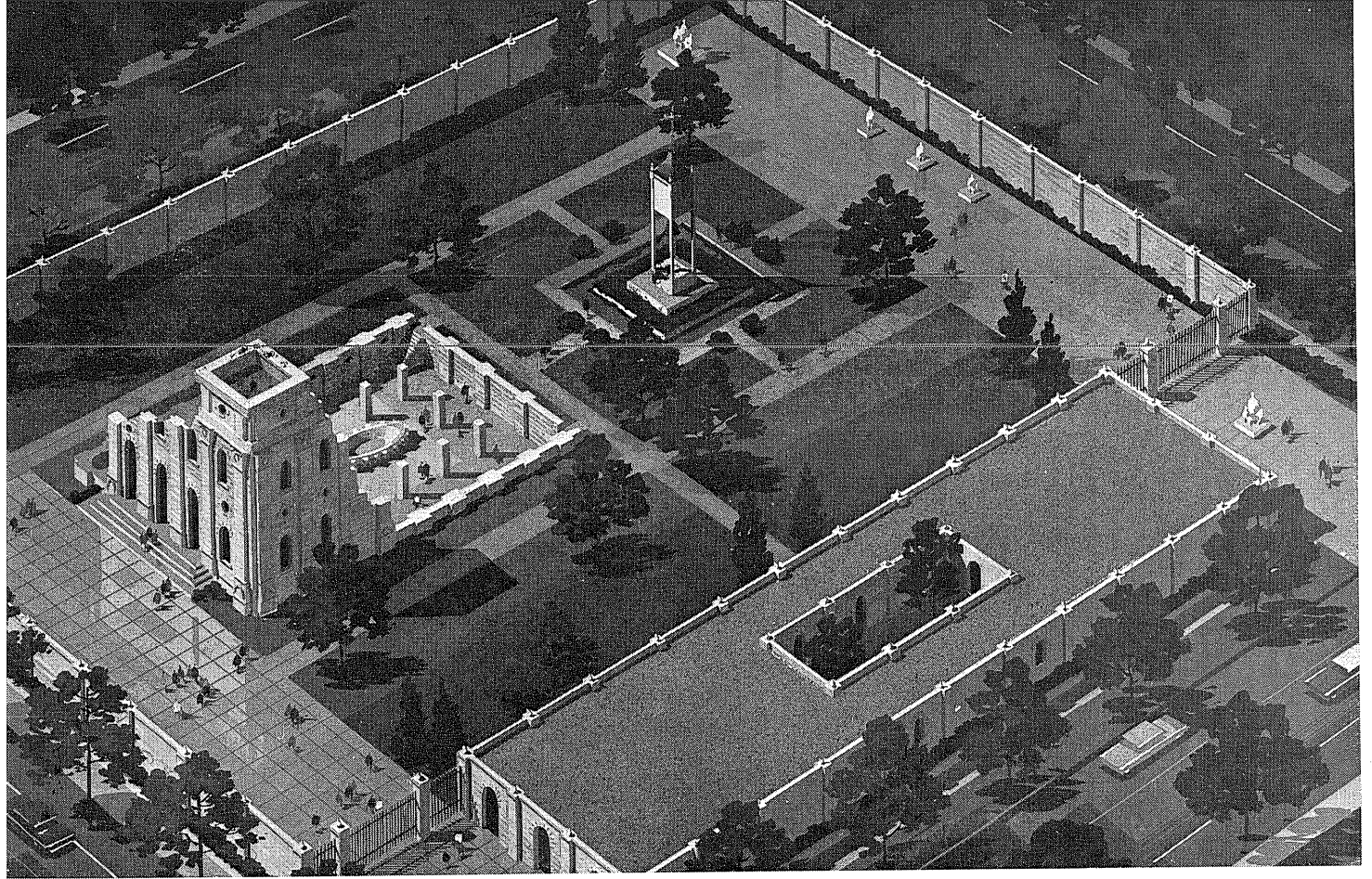
실로 인내는 큰 힘을 발하는 미덕이 되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생활에서 마음에 인내하도록 노력할 때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인내를 기르기를 바라며 현대 생활에서 받는 일반적인 압박과 긴장을 모르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복음이 특기할 만한 인내의 원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고맙게 느끼는 바입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현 대 관장이시며 예언자이신 데이비드 오. 벡케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생애에서 이 위대한 인내의 재질의 모범을 보인 본인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성도들에게 훈계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므로써 이야기를 끝맺으려 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브리서 12 :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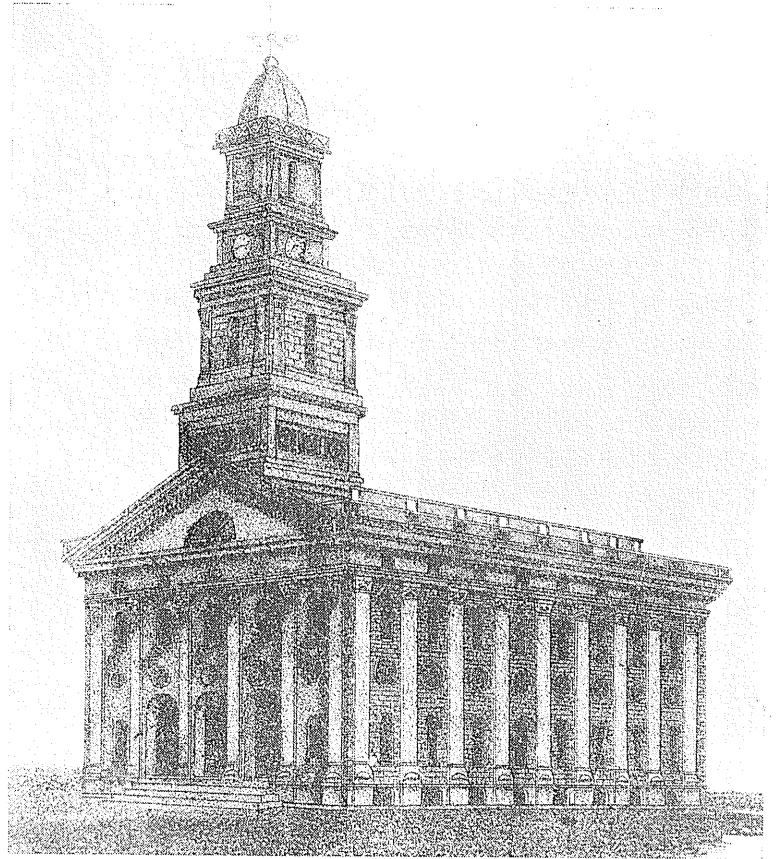


## 나부 신전의 복구

나부 신전의 일부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가 옛 나부시 일부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기업체인 나부 복구 회사에 의하여 원래의 나부 신전 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약 122년 전에 세워진 원래의 신전은 미시시피 강의 큰 지류인 일리노이주 나부에 세워져 1839~1846 사이에 교회의 본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제이. 리로이 킴블 박사가 대관장단의 임명을 받아 나부 복구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커틀랜드 신전에 이어 세워진 이 신전은 1840년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었던 두 번째의 교회 신전이다. 교회 역사로 볼 때 오하이오 기간(1831~1837)에 해당한다. 이 일리노이 신전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인봉과 결혼을 포함하는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활용된 첫번 신전이였다. 이 신전의 구조, 목적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진 사업은 1844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기전 그에게 주어진 계시의 특징을 명확히 나타낸다. 이 신전은 성도들이 광야를





첫번째라고 알려진 나부신전의 겉모양.

### 제이 엠. 토드 임프르브먼트 이라 부편집인

횡단하여 떠나기 2년반 후인 1848년 불로 파괴되었다. 복구의 목적은 미국의 중서부 지방을 통하여 여행하는 수백만의 사람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쉼터를 만들것자 하는 것이다. 지금 100,000 이상의 말일 성도가 미시시피 계곡 주위에 살고있다. 1974년까지는 매년 약 500,000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추상하고 있다.

나부 신전의 부분적 복구를 위한 건축이 1970년에는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잡고있다. 복구 공사에 앞서 세밀한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1969년 하반기에 가서야 거의 끝나게 될 것이다. 이 고고학적 연구로 이미 많은 유적을 발견해 냈는데 이에선 원래의 신전 지역을 둘러싼 담의 위치를 찾아냈으며, 벽돌로 된 일층 복도의 일부, 침례탕을 바치고 있던 석조, 황소상의 일부, 인부의 도구, 그리고 기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 유물(유리, 못, 쇠 장식, 석상, 볼트, 쇠 경첩, 끌,

도구)들은 초기 말일성도들의 수공(手工)이 월등했음을 보여 주는 바 이들의 대부분은 개종하여 유럽으로부터 1840년 대에 나부로 줄지어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이 유물은 박물관에 비치될 것이며 안내소는 신전 광장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 안내소에는 여러가지 진열 및 예술품이 걸릴 것이며 신전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한 영사실도 세워질 것이다.

안내소 가까이와 담을 두른 신전 광장 안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 스미스의 두 순교자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으며 예언자를 계승한 브리감 영의 동상이 세워질 좋은 터가 될 것이다. 다른 조각들은 나부시대의 모양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신전에 이르는 거리는 아름답게 장식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주된 전시의 대상은 나부신전의 복구된 부분이 될 것이다. 신전의 기초와 바닥은 원래의 신전이 세워졌던 장소에 정확히 세워질 것이며 규격도 원래 건물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석재와 기초 자재의 일부는

복구 공사에도 그대로 사용될 것이다. 일층의 벽돌 복도 역시 원래의 벽돌이 사용될 것이며 칩레탕을 바쳤던 12마리의 황소상도 새로운 칩레탕을 바치는데 그대로 쓰여질 것이다. 이 옆에는 신전 우물이 파져 칩레탕에 물을 대게 된다.

신전의 전면은 원래의 높은 박공벽 높이와 같게 재건되므로서 방문자들이 초기 나무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그렇게 매혹시켰던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신전은 보이기 위하여 세우는 건물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말일 성도들에게는 하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물론 시현으로 신전의 구조를 지시 받은 건물이라는 것이다. 설계에서 창문을 타원형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한 건축 책임자에게 예언자는 “형제님은 내가 계획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현에서 그 건물의 빛을 발하는 모양을 보았으며, 신전은 내게 보여 주신 모양 그대로 짓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요셉 스미스가 이 신전이 완공되어 1846년 헌납되기 전에 순교를 당하기는 했으나 그는 나무 신전의 모든 구조와 목적을 직접 지휘했던 것이다. 이미 1840년 8월 31일에 대관장단에서는 “세계에 흩어진 성도에게. 이제 기도의 집, 질서의 집,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집,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에 따라 의식이 집행될 건물을 이 땅에 세울 때가 온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경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의로운 가운데서 둘러야 될 성질의 것이므로 성도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렸다.

사실 이러한 전달이 있는 후로 나무에 있는 사람과 이곳 주위의 사람에게 이 신전을 세우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보다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없었다. 많은 방문자와 성도들에게 예언자는 오직 나무 신전 건립이라는 한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비쳤던 것이다.

1841년 1월 19일 주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던 것이다.

“또 나는 이 집에 관한 모든 일과 그 집에 관한 신전과 그 집이 세워질 장소를 나의 종 요셉에게 보여 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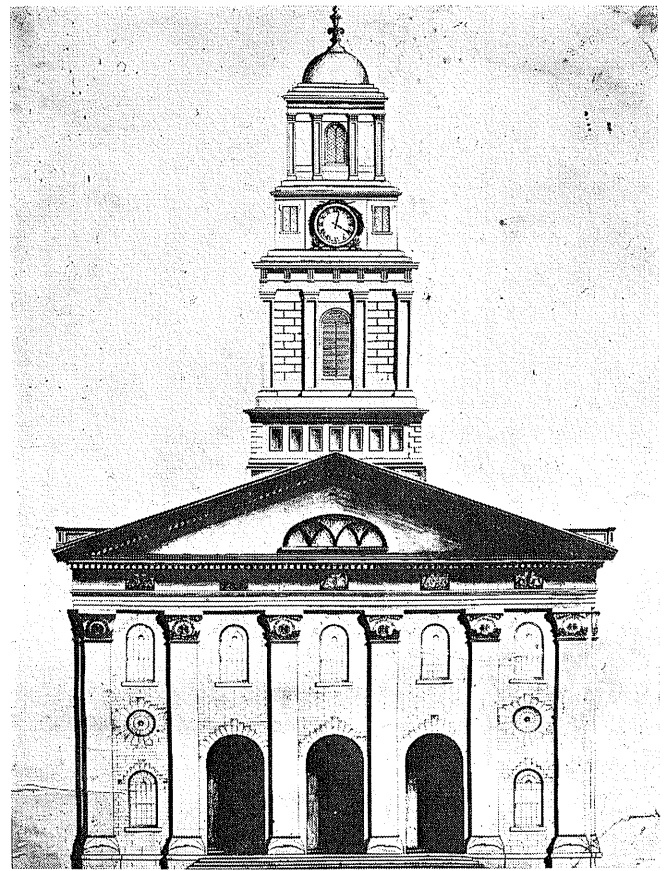
“나는 너희로 그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여오던 장소에 짓게 하노니 이는 그곳이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는 선택된 곳임이라.”(교리와 성약 124 : 42~43)

그 장소는 2km 이내에 미시시피 강의 굽이치는 장관이 내려다 보이는 나무의 언덕이었다. 이로부터 2개월 반후인 1841년 4월 대회에서 신전의 초석을 놓았다. 그 후로 건축사업이 시작되었으니 실로 많은 성도들이 위스콘신주의 산림으로 가서 재목을 벌채하는 일면 채석공들은 나무 채석장에서 분투 노력했던 것이다.

1841년 11월 8일에 이르러 신전의 지하실에 임시 목조 칩레탕을 헌납하게 되었다. 이 칩레탕은 소나무로 된 타원형의 것으로 커다란 소나무로 조각하여 아교로 접착한 12마리의 황소가 떠받들고 있었다. 이 칩레탕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샘이 있어서 칩레탕에 물을 공급하였다. 1841년 11월 21일에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칩레가 처음으로 신전에서 집행되었다. 이 의식은 1840년 9월에 몇몇사람들이 죽은 선조들을 위하여 미시시피 강에서 대리칩레를 받았을 때 이미 시작되었었다.

신전 엔다우먼트도 신전 밖에서 처음 행해졌는데 이것은 주로 긴박한 미래를 느꼈던 예언자에 의하여 행해졌다. “가까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신전이 완성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엔다우먼트를 주도록 주게서는 내게 명하였다” 이것은 12사도였던 오손 하이드 장로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이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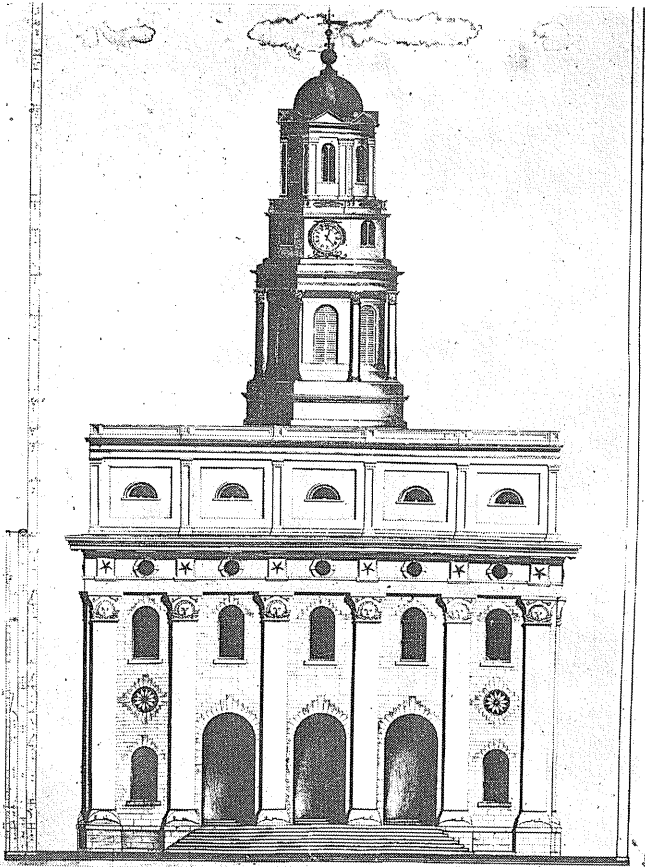
두번째라고 보여지는 신전의 겉모양은 변경되어 있다.

다우먼트는 1842년 5월 4일 미시시피 강 가까이의 새로 지은 예언자 사무실이 있던 2층에서 행해졌다. 이 소위 “기도회”는 1842~44에 걸쳐 예언자의 창고 위층에 있는 집회실에서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알려진 결혼의 첫 인봉으로서는 1년전인 1841년 4월 5일에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적절한 집행장소는 기도의 집이었으며 예언자는 주로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경주하였던 것이다. 1843년 5월 21일에는 안식일 집회를 신전의 마루바닥 위에서 가졌고 가을의 10월 대회는 공사중인 석재, 좌

석 안에서 갖게 되었다. 1844년 봄에는 유리와 못을 구입하기 위하여 교회의 부녀회원들로 조직된 “동전 기금”이 마련되었다. 영국의 성도들은 그외에도 헌금을 적시에 송금하여 탑에 쓸 큰 종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했다.

모든 성도들은 시간과 헌신을 더욱 바치도록 권유되었으며 나부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모든 날의 1/10을 신전 건축에 돌리도록 되었다. 와드의 감독은 모든 남자의 헌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였다. 어떤 사람은 신전 건축에 온 시간을 할애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생계는 속한 교회의 회원이 내는 헌금으로 충당하였고 의복은 이 계획에 참여한 자매가 세탁하든가 또는 손질해 주었던 것이다. 예언자



세번째 신전의 모형도 직각의 박공으로 되어있다.

는 건축 관리에 많은 날을 보냈으며 채석장에서 석공과 함께하며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전 설계와 재정에 관한 많은 문제로 바빴다. 때때로 그는 말다툼, 오해, 그릇된 관념을 제거하여야 했으며 다시 지시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어려움도 당해야 했던 것이다. 예언자의 성격은 현존하는 신전에 관한 몇몇 그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842년 중간에 구스타브스 힐지에 실린 “나부시의 지도”에는 4면의 석조탑, 3면의 전면 박공벽, 아래층을 가로지

른 화강암등이 나타나있다. 이 그림은 예언자의 설계가였던 윌리엄 워즈의 작품이었는데 두번째 나온 워즈의 그림에서는 예언자의 지시로 나무와 돌을 반씩 사용하여 만든 4면 탑이 8면으로 바뀌어진 것이 나타나 있으나 3면의 전면 박공벽은 그대로 남아있고 星刑石도 채 그려져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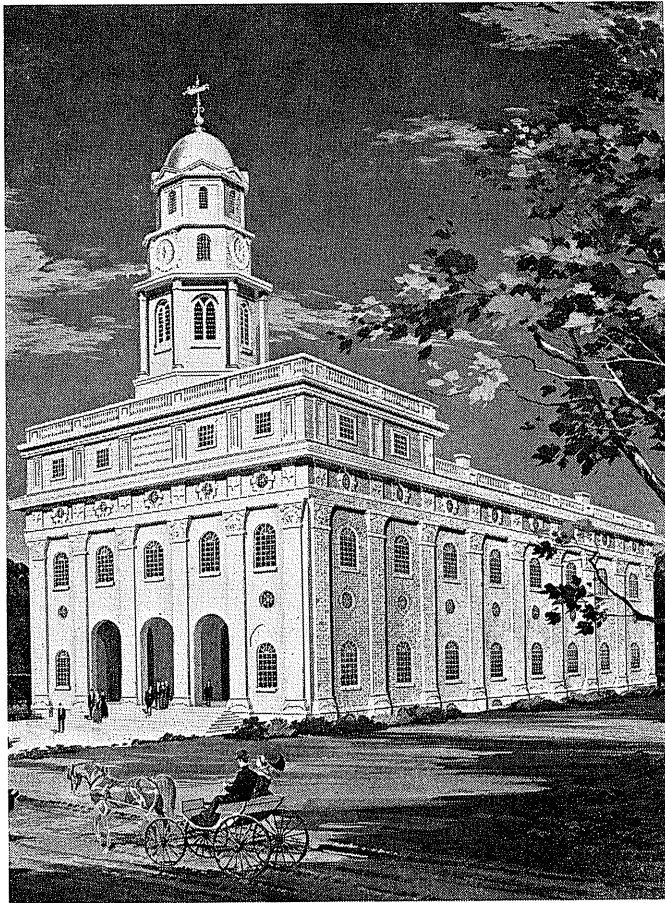
워즈의 세번째 그림에는 4각형 박공벽의 반원형 창과 목재 탑, 5면을 가리키는 星刑石이 들어가 있다. 완성된 신전은 앞에서 이야기한 몇가지 되지 않는 요소에도 변화가 생겼으니 윗 박공벽의 창문은 반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었고, 탑의 창 곁이 구조가 바뀌었으며 그 외에도 조그만 변화가 생겼다. 이 워즈의 그림은 신전 건축이 완성되기까지의 변경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변경은 아마도 예언자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워즈의 그림 중에는 수그린 천사의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후에 첨탑 끝에 장식되었다. 한 손에는 아마도 물문경을 나타내는 책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희망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있었다.

1844년에는 신전의 맨 윗층을 짓기에 이르렀는데 이해에 신전 건축과 작업의 총수였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였다. 그 결과로 6월 27일 순교 후에는 나부 주위의 모든 일이 중지된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1844년 7월 8일에는 모든 다른 공공건물 건축을 중지하고 신전 건립에만 노력을 집중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나는 비록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마지막 1전까지도 신전건립에 쏟아 이곳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겠다”고 말한 브리감 영의 영도하에서 급진적으로 진척되었다.

이러한 생각과 성도들이 조만간에 나부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점차 갖게 됨에 신전건립의 속도는 빨라져 갔다. 성도들은 신전을 하루 빨리 세워 엔다우먼트를 받고 자기들 신앙의 증거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기념으로 그 건물을 남겨두고자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 해에는 신전의 완성을 보았던 것이다. 목재 칩페탕은 석재 칩페탕으로 대체되었으며 1845년 5월 24일 관석(冠石)이 놓여짐에 따라 석공들의 노고에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내부가 오늘날의 신전 내부와 같이 품위 있지는 못하였으나 회칠을 하고, 양탄자와 커튼으로 장식하고 벽에는 그림을 걸었다. 모든 방이 똑같이 완성된 상태에 있지는 못했어도 1846년 4월 30일과 5월 1일의 헌납으로 신전 건축은 사실상 끝났던 것이다. 이전에 다락방은 이미 헌납되었으며 1845년 12월 10일부터 1846년 2월 7일까지 5,595사람이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인봉과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이 감동적인 사실은 성도들이 신전 축복을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말하여 준다. 2월 3일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나부 및 나부 주위에 사는 성도들의 집을 백체가 넘게 불사르고 계속하여 성도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뱀파자들로부터 벗어날 계획을 논의했다. 대

관장은 주위에 모인 많은 성도에게 교회는 신전 건립에 대한 축복은 충분히 받았다는 것과, 하여야 할 일이 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부를 떠나는 처음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말을 하고 마차에 짐을 싣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오바와 모자를 쓰더니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조금 간 후에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따라 오지않고 있으므로 그는 순간적으로 성도들이 영적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기다리고 있는 무리에게로 돌아와 엔다우먼트를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그날로 295 사람에게 엔다우먼트를 주었다. 이일이 있기 전과 지나간 겨울 동안 영 대관장과 많은 역원들은 거의 신전에서 살면서 보내온 음식을 먹고 간



건축가들이 신전을 결국 어떻게 완성시켰었나를 볼 수 있다.

이 침대에서 자면서 피로도 모르고 성도들에게 엔다우먼트를 주며 하루 종일을 보내곤 했다.

1846년 성도들이 떠나고 난 후 폭도들이 나부에 들어와 적은 수의 성도의 무력함을 틈타 약탈과 쾰박을 하였던 것이다. 서쪽 끝에 “주님의 집……주께 성스러움”이란 새김돌이 있던 신전은 이 도시를 점령한 폭도의 숙소가 되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신전을 관리하다가 피난했던 성도들이 다시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다.

1948년 10월 9일 세 사람이 신전에 불을 놓았다고 전하여진다. 방화자들에 관한 기사가 신문 전면에 크게 보도되어 전국에 알려졌다. 그슬린 돌과 남아있던 벽은 1850년의 태풍으로 휩쓸려가 “폭도”들로 황폐된 신전터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박은 엘리야의 영은 쉽게 흐려질 수가 없는 것이다. 성도들이 1847년 쏘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4일 후에 브리갠 영은 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전을 지을 것이다”고 이야기했으며 30년 내에 다른 세 신전의 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예언자 요셉이 심은 의식의 사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관심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사실 신전 사업의 정신은 말일과 복천년 동안에 주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이 여러 세대의 예언자에 의하여 이야기 되었다.

이 특기할만한 신전 이야기와 이와 관련된 진리는 미시시피강의 경사진 언덕 위에 나부 신전의 일부를 회복하려는 이유 중의 일부가 된다. 확실히 이러한 이야기는 단위에서의 이야기나 혹은 회상으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사랑과 기도의 시편들” 중에서

(8)

새벽은

또 얼마나 더디게

밝아 옵니까.

아픈 사랑의 비탈

피로한 밤이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음 속 고요히 불러 보는

당신의 이름.

불빛 새어 나오는

물 뿌린 거리를

나는 당신을 향해

문을 엽니다.

— 김 경 수

##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정 직

존 에이취. 반덴버그

사과 씨를 보고 이 조그만 물체 속에는 장차 뿌리, 몸통, 껍질, 가지, 잎, 꽃, 열매 그리고 똑같은 가능성을 가진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본일이 있는지? 이 조그만 씨 속에 커다란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과학은 가장 작은 입자 속에서 우주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힘을 발견하였다. 즉 원자력이다.

사과 씨나 원자와같은 작은 행동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주께서는 “.....적은 것에서부터 위대한 것이 나오느니라” (교리와 성약 64 : 33)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정직이 관련된 행동인 한 이는 가장 명확한 진리인 것이다.

정직은 인격의 기초가 된다. 사람이 정직하기 전에는 어떠한 미덕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직을 편리할 때에는 취하고 어려울 때에는 포기하는 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정직하게 될 수 있으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정직하려면 진리와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지 결코 순간적인 위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정직할 것을 명하셨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변명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 점에 관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이 속하려고 거짓말을 하리라 생각하여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는 자에게 화있을지어다. 이같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이니라.” (교성 10 : 28)

정직은 타협될 수 없다. 개척 당시의 위대한 교육가였던 칼 지·메셔는 정직을 잘 설명하였다. 그는 “나는 정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질문 받았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만약 나를 매우 두렵고 높은 돌담안의 감옥에 투옥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만

한다면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루에 원을 그리고 그 원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면 제가 그 밖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원 밖으로 나가기 보다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직의 중요성은 과장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다. 경전을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도록 명하셨다. 시내산에서 주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 : 16)고 명하셨다. 절정의 때에서도 우리는 같은 명령 (빌립보서 4 : 8)을 찾을 수 있으며 니파이인에게도 같은 계명이 주어졌으며 (모사이야 4 : 28) 현 신권시대에서도 주께서는 정직의 표준을 보이셨다. (교리와 성약 42 : 21, 51 : 9)

정직은 언제나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짓는 명확한 표식이 되어 왔다. 크롬웰의 말에 “적은 수의 정직한 사람은 많은 수의 사람보다 낫다. 만일 여러분이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을 대장으로 선택한다면..... 정직한 사람은 그를 따를 것이다.”

미모와 매력의 소유자였던 유대인 소녀 에스터는 페르샤 왕국의 수많은 처녀 가운데 페르샤의 왕비로 발탁되었다. 그후 수상 하만은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포고를 내렸다. 에스터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워 했으나 한 편으로는 중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자기의 비밀을 간직하여 사랑하는 동족이 멸망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으며 국왕에게 자기의 국적을 이야기하므로써 목숨의 위험을 내걸고라도 동족을 구할 수도 있었다. 왕비는 정직하고 용감한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우리가 에스터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용기있는 정직한 때문인 것이다.

확실히 정직은 위대한 사람의 표식이 된다. 그리고 정직은 나날의 조그만 것에서부터 배우고 단련하여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부정하게 시험에 임하더라도 자기는 정직하며, 부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승리를 얻더라도 정직히 운동 경기에 임하며, 매 주일 성찬을 취하면서 계명을 지키기로 하는등 이러한 모든 결정은 정직하고 순결하며 성공적인 남자와 여자가 되는 씨앗인 것이다.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 : 33)는 말은 실로 진리인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행하며 이 백성이 모두 평균하게 되며 균등하게 받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하나가 될지어다.

교리와 성약 51편 9절

# 주 일 학교 페이지

## 단순성

로웰 엘. 베니온

진열장 처럼 공과도 단순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나와 집사람은 함께 윈도우 쇼핑(물건은 사지 않고 진열장 구경만함)을 나간 일이 있었다. 철시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구경밖에 할 것이 없었다. 길 옆에는 가구점이 두개 있었는데 한 상점의 진열장에는 침실 가구, 식탁, 거실 가구, 램프등이 창고와같이 선반에 잔뜩 쌓여 있었고 다른 상점의 진열장에는 오직 녹색 가죽 의자와 발 받침, 램프 그리고 한편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을 뿐이었다. 어제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의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인상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다.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상인들이 진열장을 꾸밀때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단순한 구조와 보조물로 통일된 초점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 단순성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공과도 단순한 초점과 통일된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여러번 강조해 왔지만 교사들이 주제에 대하여 집약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산만한 견해를 갖게 되므로 학생들이 깊은 감명을 받지 못한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가르치는데 있어서의 단순성

진열장처럼 공과도 단순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1) 한 단어를 중심으로 공과를 진행할 수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관하여 공과를 한다고 가정하자. 단순화되고 통일된 방법은 흑판에 “사랑”이라는 말을 기록한 후에 각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만일 학생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뒷 줄이나 둘째줄 사람에게 질문함) 아니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이다. 좀 흥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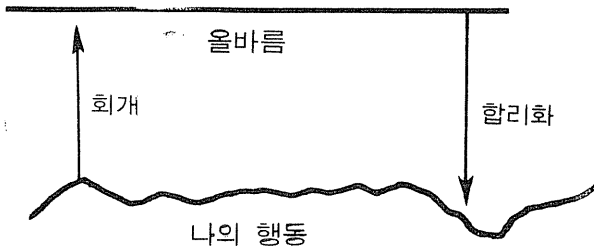
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자 친구와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교사는 어느 점에 가장 관심있어 하는가를 이해하여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한다. “사랑”이라는 말은 초점이 잘 잡힐 것이다.

(2) 공과는 한 이야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씨뿌리는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어느 것도 좋다. 교사는 이야기에 관하여 질문하기 쉽도록 이야기함은 물론 학생들이 이야기의 교훈을 잘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오늘 공과를 생활에 적용토록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상처를 입거나 다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었나? (예를 들면 구도자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중 어느 사람이 되겠는가? 자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나? 생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학생이 반원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와 그것이 의미하는 교훈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3) 통일성과 단순성으로 공과의 교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잠언 16:2)

이 구절은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두가지 방법, 즉 회개를 하던가 아니면 합리화(자기 정당화) 중의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하는 토론을 제기하여 주므로써 회개에 접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같이 도표로 그릴 수 있다.



자기 기만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화의 간교한 이유에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 나쁜것을 하는데,” “꼭 이번만 ” “나는 체하기 싫거든” “만일 내가 죄를 범해본다면 죄인에 대하여 더욱 동정하게 되겠지” 등이 있겠다.

단순성은 예술이나 가르치는 기교에 있어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 2월 성찬식 절주곡

Andante Robert Cundick

## 2월 성찬식 성경봉독

### 장년 주일 학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 복음 6 : 33)

### 유년 주일 학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 복음 22 : 39)

## 3월 성구암송 및 이분반 이야기

2일 로마서 6장 23절 (복음의 멧세지반)

9일 사도행전 20장 29~30절 (//)

16일 요한 1서 4장 (야고보반)

23일 야고보서 2장 14~17절 (복음의 멧세지반)

30일 신명기 5장 8~10절 (야고보반)

아모스서 3장 7절 (요한반)

신앙개조 제3조 (//)

율기 19장 25~27절 (기초교리반)

고린도전서 2장 10~12절 (요한반)

신앙개조 제4조 (기초교리반)

# 살아계신 아버지

도라 디. 플렉

## 실 화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각 방에 설치된 인터폰에서 이러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레타는 몸을 숙여 침대에 누워있는 6살 된 딸 애나의 금발에 얼굴을 묻으면서 딸이 눈물을 감추고 미소를 지으며 저녁의 작별 인사를 나누어 주기를 바랬다.

“내일 다시 와서 경과를 보아야겠구나. 오늘 밤은 너와 같이 병원에 있지못하게 하니 나가야겠다”라면서 상기된 불에 입을 맞추었다.

애나는 괴로운 중에도 미소를 지으며 “괜찮을 거예요” 하고 대답했다.

그레타는 다른 어린이 병실에 문병은 부모들이 떠나기 싫어 머무적 거리며 고사리같은 손을 꼭 잡는 것을 보았다. 문에 서서 애나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 그는 절망과 고독을 느끼면서 복도로 걸어 나왔다. 애나가 완쾌될 수 있을까? 아니면...

병원 주차장에 나온 그레타는 열쇠를 찾아 차 문을 열고 핸들 뒤로 몸을 던지고는 핸들을 단단히 잡았다. 울음이 북바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핸들 잡은 손에 얼굴을 묻었다. 애나는 무사하리라는 신념으로 눈물과 자조(自嘲)의 긴장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애나는 지금의 처지로 보아 모든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서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섯 자녀에게 침착한 모습을 모여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차의 시동을 걸고 그녀는 “여보 당신이 생각나요. 어떻게 혼자서 어머니와 아버지 노릇을 다 할 수 있단 말예요? 아이들과 나는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하고 중얼거렸다.

그레타의 생각은 어느덧 3개월 전 남편 한즈의 병상 옆에서 참을성있게 앉아 있던 때로 흘러갔다. 비록 남편의 육체는 쇠잔해 갔어도 정신만은 날카로왔던 것이다.

“여보 녹음기를 사려면 돈을 모두 긁어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자고 했을 때 당신은 나를 매우 사치스럽다 생각했으리라 생각되오”

“당신은 내게 왜 녹음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소. 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아는 바 아니오. 당신 혼자서 일곱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는지 생각해 왔다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굳게 결속하여 온 친밀과 사랑을 누려왔소. 복음은 만일 우리가 합당하다면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줄거요. 어린 것들을 잘 부

탁하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의 일이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나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왔어요. 내가 어떻게 혼자서 그것을 할 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음기를 사라고 한거요. 그것을 이곳에 놓아 주시요. 내 힘이 허락하는대로 아이들에게 남길 말을 녹음하겠소. 비록 당신이 나를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오. 결코 이 말을 잊지 말아 주기 바라오.”

그레타는 차를 대문 앞 길로 돌렸다. 자기가 없는 동안 어린이들의 용기를 북돋우어 주기라도 하려는듯 온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다.

그레타는 부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떠들고 법석을 부리지 않는 것을 보면 조용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게 아닌가 그는 믿을 수 없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이들은 남편이 돌아간 후에 용기가 없어 차마 듣지 못하던 녹음기를 틀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레타는 바짝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남편의 강하고 달래는 듯한 목소리는 자기의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 앉혔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헤어져 있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항상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편의 바른 소리에 힘과 용기를 얻은 그레타는 자녀들을 쉽게 대할 수 있음을 알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는 방의 훌륭한 분위기와 어린 얼굴에 나타난 맑고 고요한 표정에 놀랐다.

14살 된 피터가 눈을 치켜 올려 어머니가 문가에 서있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 녹음기를 껐다. “엄마 화내지 말아요. 우리는 애나에 대해서도 걱정했고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어. 녹음기를 고장내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단 말야.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그리운걸.”

“그래 피터야, 우리 모두는 녹음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상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해. 애나는 괜찮을 게다. 잘시간이 지났구나 아가야 기도를 잊지 말고 자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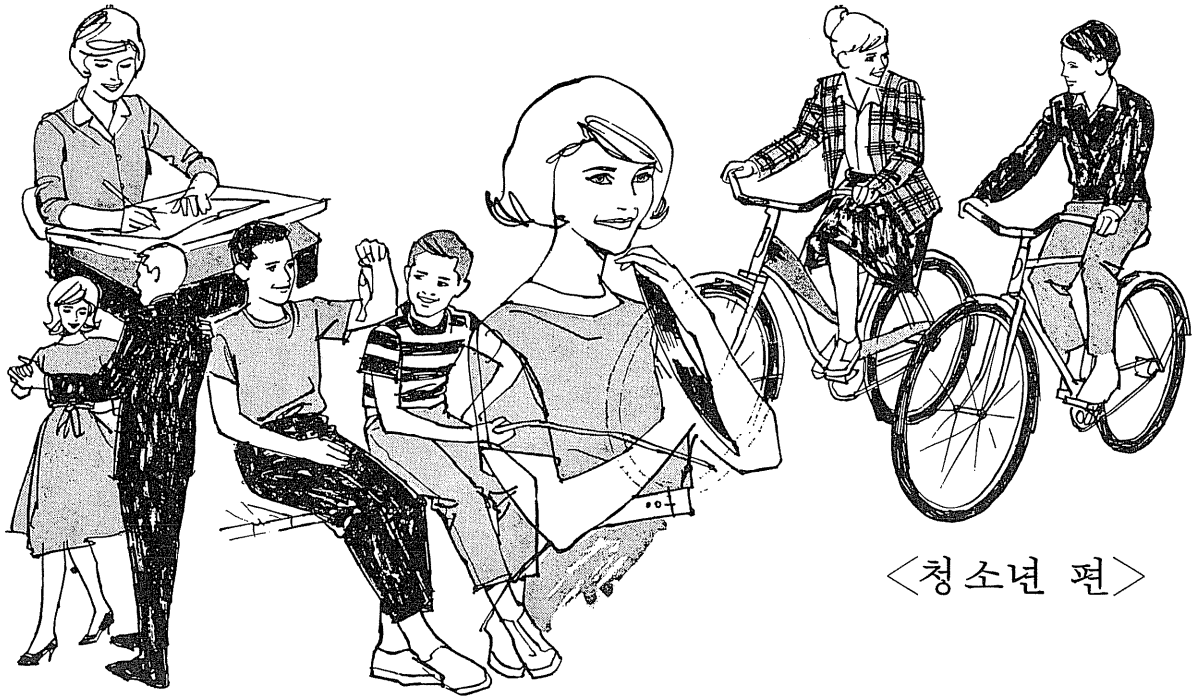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그레타는 병원 복도를 걸어 어린이 병실의 무거운 문을 밀었다.

“아가야, 잘 잤니? 어제 밤에는 좀 어떠했니?”하고 생기있게 물었다.

“엄마, 아주 잘 잤어. 엄마도 그리워하지 않교.” 하면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16 페이지 우측 아래에 계속





<청소년 편>

## 나는 당신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리온 디. 행크스

젊은이는 도대체가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랐으나 여하간에 하나님의 대자연 속에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기만 하여도 나올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 울창한 숲 속에 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기가 원하던 바를 여쭙어 보게 되었다. 지상의 아버지는 그리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었고 어머니 또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가족 모두가 다소의 종교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사실 그는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고뇌가 비정상일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것임에는 틀림 없었다. 학교를 집어치우고는 본래의 자기로서는 애초에 원하지도 않던 부류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돌아다녔다. 하는 일이 실통치 않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앞날을 지극히 걱정해야 할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그 필요가 메꾸어 질 수 있을런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근처 숲 속에 들어가 기도로 간구하여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고 한 번 부딪쳐 보기로 작정했다.

그 날 아침 젊은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그의 이야기는 지극히도 간단했으나 월남의 장글 위를 나르는 비행기 속에서 이를 전해 듣는 순간 나는 온 몸에 전류가 통하는 듯 했다.

“저는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그 때에 이렇다 할만한 답변에 접한 것도 아니었다.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며 시험을 본 것도 아니었다. 바람도 불지않는 아침의 고요와 자기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 무엇인가 들었다고 생각했으며 만일 기령치 않았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에 대한 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떠날 수 있었다.

그 날 아침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에서 운전사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자기가 그렇게도 염원하던 답의 처음을 알게 되었다. “글쎄,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젊은 친구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운전사는 입을 열었다. 이리하여 대화는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이 젊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속하여 새로운 삶의 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육군 상병인 그는 16살에 이르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삶 자체가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는 여러 동료들에 끼어 겸손하고 위엄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일하면서 선과 강력한 힘을 쌓아갔던 것이다.

# 신을 들머라

제프 홀랜드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입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교리와 성약 1편 12절)  
참으로 한 음성이 외치나니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린 양의 만찬을 준비하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교리와 성약 65편 3절)  
또 천사는 공중에 날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때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교리와 성약 88편 92절)

나의 친구 중의 한 사람이 학교 축구 팀에 있을 때 별로 영광스럽지 못한 센터하프로서의 선수 생활을 이야기들은 적이 있었다. 비록 그가 팀을 조직하기는 하였으나 축구를 잘 못하는 것이 곧 밝혀져 얼마 가지 않아서 후보로 되었고 그 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축구를 포기하였다. 마지막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그는 구두끈을 풀고 담요로 몸을 싸고 앉아서 자기 팀이 경기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나가서 경기해, 공격을 해 봐!”

이 소리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처음 “코치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구두 끈 좀 매고요” 하고 말하려고 했었지만 다음 순간 못 들은 척 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자답게 셔츠를 벗고 축구장으로 뛰어 내려 갔다. 스타킹을 한 그의 발은 눈에 띄게 확고했다. 불신하는 동료 선수 가운데서 그는 공격을 리드하였다. 그러나 첫 번 경기에서의 충격은 그를 좀 당황하게 하였다. 라이트 인사이드로부터 백패스를 받자 그는 자기가 참여하고있는 것이 무슨 경기인가를 잊어 버리게 되었다. 자기 편이 공격진이 오른 쪽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자 그는 재빨리 왼 쪽으로 들어가 정면으로 수비진과 접하게 되었으며 수비진의 하프 백과 백의 무리에 휩쓸려 제지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비록 이 이야기가 해피 엔드로 끝나기는 하지만 친구의 이 이야기는 내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도 내가 공을 넣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경기를 잘 하리라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격하는 방향을 잘 못 잡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센터 하프가 구두를 신지않은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중에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원하면 번역의 은사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다.

(교리와 성약 6 : 25)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경기에서 구두를 신지 않고 경기에 임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임하기 전보다 더욱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에대한 믿음과 대의는 흔들림을 당하게 되었고 비록 “내가 준비 될 때까지 기다리소서”고 부르짖었을지라도 그는 영원한 사업은 정지할 수가 없었음을 배웠던 것이다. 주께서는 올리버에게 “네가 번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럼 계속하지 아니한 연고로... 이 특권을 거두어 갔느니라...너는 두려워하였고 시간이 흘러갔으니 이제는 필요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 : 5, 11)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생애의 기회는 그 기회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하여 그 사람에게 속해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하여 이 기회는 올리버에게서 영원히 떠났던 것이다.

교회의 청년들이여 당신들 앞에는 커다란 발전이 있는 것이다. 느낄 수 있는 평화와 지고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충실하게 준비를 갖추고 투쟁에서 신뢰를 갖으며 남을 기꺼이 섬기라. 들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는 오신다. “급히 일어나라...신을 들머라... 따라오라.”(사도행전 12 : 7, 8 참조)

## 14페이지의 계속

“외롭지 않았어? 아이고 착해라! 나는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어쩌나 걱정되었는지 몰랐단다.”

“나는 혼자 있지 않았어.”

“간호원이 너와 함께 있었니?”

“아니야, 엄마. 어제 엄마가 갔을 때 다른 아이 부모도 모두 갔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모두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에게 좀 미안했어.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밤새도록 같이 있어 주셨거든. 아버지는 다른 아이 부모가 병원을 떠났을 때도 떠날 필요가 없었던 말야.”

# 더 훌륭한 도구는 없다

드웨인 제이. 싸익스

대학 화학 수업이 계속됨에 따라 까다로운 화학 과정은 정말 골치덩어리였다. 복잡한 분자식, 끝없는 반응, 과정 일람표, 차트, 거기에 골치아픈 문제까지 곁들여 있는 것이다.

한 학기가 끝날 즈음해서 네 학생이 침울한 표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지를 상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귀환 선교사였으며 한 사람은 꽤 큰 키였으나 나머지 한 사람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이 두 사람은 말일성도가 아니었다. 좀 마른 몸의 두 사람 중 붉은 머리의 청년이 풀이 죽어서 말했다.

“내가 학점을 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 키팅 중이를 잘 준비하는 길 밖에는 없어.”

“그 딱딱한 것을 모두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할 도리가 없겠어.”하고 키 큰 물몬 청년이 속을 터 놓았다.

“우리 합동작전으로 키팅하자.”

이들 중 두 사람은 공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리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 넣을 수가 있었다. 빈 필립 말이개와 나무 막대기를 각각 두 개씩 사용하여 막대기를 십대로하고 좁은 계산기 종이를 두 말이개 사이에 연결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막대기에 둥근 고무줄을 연결하므로써 종이는 앞 뒤로 자유로이 감기며 풀릴 수 있었던 것이다. 조금 연습을 하게되자 이 두루마리 같이 생긴 키팅 도구는 손 바닥에 쉽게 감출 수 있었고 손가락으로 튀김으로서 자유롭게 감기고 풀릴 수 있었다. 이것은 완전한 도구 였으며 다루는데도 능숙하여졌다.

이제는 오직 종이에 바른 답을 적어넣는 문제만 남게 되었다.

네 학생은 함께 각자의 노트를 4개씩 정서하여 이것을 하나로 합축시켰으며 교과서와는 두 번이나 대조하였고 반응을 주의 깊게 실험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간단히 요약하여 틀리지않게 주의하면서 연필로 종이 테이프 위에 적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연필로 쓴 것을 모두 잉

크로 써서 3 개를 더 만들었다.

그들은 키팅 도구로 연습을하며 답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서로 질문하고 익숙히 하였다. 시험 시간이 되자 그들은 모든 것을 마쳤다.

네 사람이 시험을 보러 함께 교실로 들어 갔는데 키가 큰 물몬 학생은 두뼨 두뼨 앞으로 걸어나가 교수에게로 가서 주머니에서 키팅 도구를 꺼내어 책상 위에 던져 놓고 그것을 가르치며, “이것보다 더 훌륭한 키팅 도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고 말했다.

“본 일이 없는데.” 교수는 놀라며 그 도구를 주의 깊게 살펴 보고 있었다.

그 학생은 빨리 돌아 서서 자기 자리로 걸어가 연필을 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머뭇거리더니 키가 작은 귀환 선교사도 교수에게로 다가 가서 키팅 도구를 교수 앞에 던져 주며 “예, 선생님, 정말 훌륭한 발명품입니다.”고 말하더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교실 뒤에 앉아있던 나머지 두 학생도 놀라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 놀라 쳐다보더니 붉은 머리의 학생이 상 앞 책으로 걸어나가 자기 것도 던져 놓았다. “정말 걸작입니다.” 이 학생 조금 뒤에 다른 학생이 따라 나왔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이 네 학생은 모두 시험을 치렀는데 한결같이 시험을 잘 치렀던 것이다. 그 결과 각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이들은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고 세 학생은 키 큰 귀환 선교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하였다. 비회원이었던 두 사람은 교회에 관하여 묻기 시작하였으며 두 귀환 선교사와 함께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머지않아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이 중 한 사람은 선교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스포트 레이크 시의 한 와드에서 소년단 지도자로 활동 중이다. 작은 귀환 선교사는 활동적인 교회의 일꾼이며 자기 와드에서 지도자로 있으며 키 큰 동료는 지금은 스테이크 부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 보고와 공지 사항

벨 에스. 스패포드

다음은 1968년 10월 2일 상호 부조회 반 연차대회의  
역원회에서 행한 말씀의 전문입니다.

그때 그때의 공적인 지시 사항 과 본부 역원회에서 주는 추천 사항과 상호 부조회의 위치에 관한 간단한 보고를 하는 것은 연차 상호 부조회 역원회의 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최근의 보고 숫자와 그 앞의 해의 그것을 비교하므로써 성장과 발전의 정확한 지식을 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전 세계 교회에 걸쳐 수집된 통계 숫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196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8 개월 간의 보고서 숫자를 이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 8 개월 동안의 보고서는 지난 1년동안의 보고서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

과업의 성장과 확장은 일해 나가는 과정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니 교회 협의분과위원회의 규제와 추천에 조화를 이루면서 과업을 표준화를 더욱 확고히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새로 인가된 교회 교재, 특별히 부조회의 특유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많은 해외의 부조회 조직에 상호부조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범한 번역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 과업의 표준화

과업을 표준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금년 1월에 발행된 상호 부조회 안내서인 것입니다. 개정된 기록서와 방문교사 보고서도 교회 협의회 승인자 처럼 이 과업의 표준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단순화 된 공과를 필요로하는 모임은

위하여 준비된 4권의 책은 여름 동안 대학 상호 부조회에 사용하도록 준비된 공과와 함께 복음 교육 계획의 통일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부조회에서는 공인된 공과나 기타 계획에 대처하여 각 모임에서 임의로 계획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상호 부조회 공과와 기타 자료의 번역에 대하여 교회 번역부에서는 16 개국어로 번역이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몇 개국어로 더 번역이 기대된다는 것을 알게되시면 여러분은 기쁘게 생각 하시리라 믿습니다.

### 대학 상호 부조회 회원에 관한 연차 보고

1967년 8월 31일의 회원 수는 1967년 1월 1일의 그것에 비하여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대학 상호 부조회에 1 만여명의 자매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자매들이 봄이나 초여름에 대학을 떠나 가을에 다시 대학에 돌아올 때까지는 어떠한 기록이 없었던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 상호 부조회 회원수를 8월 31일의 그것으로 하지 않고 5월의 회원 수로 하였더라면 12개월 평균 회원 수는 10,000 명이 훨씬 넘으리라 생각됩니다.

### 신 육아 안내서

상호 부조회 신 육아 안내서가 어린이를 위한 특별 기고 위원회의 노고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알립니다. 또한 매우 애용되리라 믿습니다. 이에는 약간의 일반적인 지시, 공과, 이야기, 노래, 손가락 놀이, 기타 추천된 활동이 수록되어 있는바 이것들은 모두 즐거웁고 의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미취학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주의 깊게 선택한 것들입니다. 스테이크와 와드, 선교부와 지부 부조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안내서는 수 년동안 계속하여 활용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영어 외의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 레이만인 부조회의 강화

여러분 스테이크나 선교부 내에 레이만인 부조회가 있는 경우의 자매님들은 가능한 모든 힘을 기울여 이 부조회가 레이만인 자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레이만인 자매들이 교회와 그들이 처한 환경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관심을 갖도록 그들이 훌륭한 가정을 꾸미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확실히 그들로 하여금 고유 문화의 아름다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 부조회를 통하여 우리 두 자매 중 한 사람 꺾로 제공하는 편의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레이만인 자매들이 1968~69년에 사용할 공과가 특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자매들은 필요하다면 특별 공과 제 1권부터 제 4권 사이에 수록된 공과를 반복하여 사용하게 될 것

입니다. 그들은 또한 정규의 가사 모임, 토론 자료, 방문 교사 공과, 금년의 교육 계획을 위한 사회 관계 공과를 활용할 것입니다. 레이판인 자매들이 1969~70 동안 사용할 일련의 새로운 공과가 준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 육

여성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전반적이며 균형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구로서의 상호 부조회는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약 25,000 명에 달하는 자매가 각반의 지도자로서 공과에 참석하기 전에 잘 준비하며 각반의 토론에서 의미있는 활동에 자매들이 참여하도록하는 것입니다. 1968~69년 공과 과정에 따라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6월에 발행된 관리감독안내서와 상호 부조회 잡지 1968년 8월호 교육란의 주의 사항으로 지시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제 상호부조회 공과와도 상관 관계가 있으며 벨키세텍 신권회 공과로 사용되었던 책을 지은 고 제이 루우벤 클라크 2세의 사진이 데저렛 출판사의 인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1 장부터 5 장까지 구입하신다면 우송 요금 포함 각 장에 35센트(96원)이며 6 장 이상을 구입하신다면 우송 요금 포함 25센트(69원)입니다.

## 가 사 모 임

앞으로 올 회기 동안 가사 모임에서 사용토록 준비된 공과와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과들은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선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그리하여 가정에서 영적인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하는 원리와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과는 무시되면 안될 것이지만 가사 활동의 다른 분야의 시간을 침입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적십자 가정 간호 강좌

관리 감독단은 상호 부조회 회원들이 가정 간호 강좌를 수강할 필요가 큼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 적십자사의 관대하며 열성어린 협조로 미국 아리조나주의 웨닉스와 메사에서 매우 성공적인 강좌를 개최하여 왔고 아리조나주 남부, 프로보, 옥든 그리고 씨애틀 지역에서 현재 강좌가 개최 중인바 이에 대해 적십자사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 강좌는 포틀랜드 지역에도 확대하여 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관리 감독단과 적십자사가 협조하여 준비가되는 대로 강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 천의 상호 부조회 가정에서 이 계획의 혜택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가정 간호 과정의 강좌를 원하신다면 관리 감독단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 선 사 업

196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8개월 동안 가정에서 외병 중

인 환자를 간호한 것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여 24,500 일이 됩니다. 이와같이 자선 활동을 해나가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남은 4개월까지 합한 활동 일 수는 하루 8시간으로 잡아 전년에 비해 5,500 일이 증가한 것입니다. 1968년 4월호 상호 부조회 잡지에 기재된 다른 형태의 위문 활동의 규모를 보면 용기가 저절로 남을 느낄 것이며 상호 부조회야말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복지 시간의 기록

상호 부조회는 계속하여 본부 신권 관리 위원회의 지도 아래 교회 복지 계획을 도와 왔던 것입니다. 복지 사업에서 여성들에 의하여 공헌되는 시간의 기록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상호 부조회 회원들이 헌신하는 시간만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 문 교 육

방문 교육 계획은 십 삼만 이천 명의 방문 교사가 연 5백 만에 이르는 방문을 하므로써 그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상호 부조회 회장단과 방문교사들은 이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나가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 음 악

상호 부조회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정서의 풍성함, 즐거움,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되는 것은 물론 교양과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온의 찬송가를 노래하는 어머니 합창단의 영광스런 음악의 축복, 독주를 한 재능있는 자매, 훌륭한 반주자, 아름답고 경건한 전후주 이러한 모든 음악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대회는 지극히 천박해지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노래하는 어머니 합창단의 단원 수가 증가하고 업적이 커지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 합창단에 대한 인식과 중요한 행사에서의 초청 공연 의뢰 회수는 증가 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전야에 미국 NBC 방송망으로 전국에 30분 동안 방송된 엘른 앤. 반즈 자매 지휘의 뉴욕과 뉴저지 지역 자매들의 합창 공연과 몬테즈 알데페지 자매의 지휘로 남부 8개 스테이크 자매 375 명의 연합 합창으로 레미즈 웨어(박람회의 일종)에서한 공연은 이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 외 합창단에서도 중요한 행사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관리 감독단에서는 여러 자매님들이 스테이크 밖에서 공연을 할 경우 관리 감독의 승인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노래 자랑 대회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유능한 음악가이며

감독단의 회원이었던 클리온 엑크리즈 자매의 호의로 말일 성도 여자들이 참가하는 “상호 부교회 노래 자랑”이라는 노래, 작곡, 가사의 경연 대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교회의 자매들 간에 음악 분야 중에서도 이런 형태의 예술의 아름다움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조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의 대회는 본 광고로부터 시작하여 1969년 3월 1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참가 신청은 마감일을 지켜 관리 감독단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규정은 1968년 10월호 상호 부교회 잡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잡 지

잡지 구독 권장 계획에 대한 스테이크와 와드 회장단과 잡지 책임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현재 영어 및 서반아어로 발행되는 이 잡지의 발행부수는 273,000 권이나 됩니다. 부교회 활동의 모든 면에 대한 이 잡지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 전 의 복 분 배

의류 공급 계획에 솔선하여 탁월한 노력을 보여 주신 스테이크 상호 부교회 회장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이 커다란 사업의 정신을 이해하셨고 이 사업을 상호 부교회에 위임한 대관장단에서 바라던 목적을 실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견해로는 대관장단에서 상호 부교회에 이것보다 더욱 중요하며 커다란 과업을 주어 본일이 없었으며 상호 부교회 회장들도 대관장단에서 바라던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사업에 쏟은 열성보다 더 진지하게 힘썼던 때는 일찍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신전 의복 분배에 모두 계속해 참여하므로서 축복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 금 모 금

와드와 스테이크 상호 부교회 회장은 기금 모금에 현명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출하는 데에는 물론 재정장부를 작성하는 데에도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교회役員과 함께 회장은 신 지시서 61~69페이지에 있는 제10부 “기금”을 다시 한 번 보고 63 페이지의 “상업 판매에

의 참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사 모임에서 전시될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 자매들 중에는 점차 그 물건 전시하는 당사자나 자기가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나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리는 바랍니다.

상호 부교회에서 역원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책임과 신뢰를 동반하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 부교회 역원은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1968년 11월 20일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일반 지도서 31 페이지에 상호 부교회 역원의 안수성임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 감독단은 지부 보조 조직의 역원을 임명함

와드 보조 조직의 회장은 감독단에서 선발합니다. 와드의 회원의 지지가 있는 다음에 이들은 감독이나 혹은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 의하여 안수 성임됩니다. 보조 조직의 다른 역원과 교사는 그 조직의 장이 추천하여도 무방하나 이들도 해당 정기집회에서 지지를 얻어 감독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 의하여 안수 성임될 수 있습니다. 보조 조직의 지도자는 감독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접견하고 부름을 내릴 때까지는 새 일군과 접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신간 상호 부교회 지도서 41 페이지에 있는 역원, 반교사와 방문교사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방문 교사에 관하여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임무때문에 신권의 권능으로 부름을 받으며 상호 부교회의 사자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꼭 안수, 성임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 복음 교사가 안수, 성임되지 않는 것에 준용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들이 대하는 여성들은 귀중한 존재이며, 옳은 일을 하기에 열성일 뿐만 아니라 삶을 지성(知性)으로 맞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된 자매들이 상호 부교회의 회원임을 기쁘게 여기며 상호 부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희망에 축복 받도록 상호 부교회의 과업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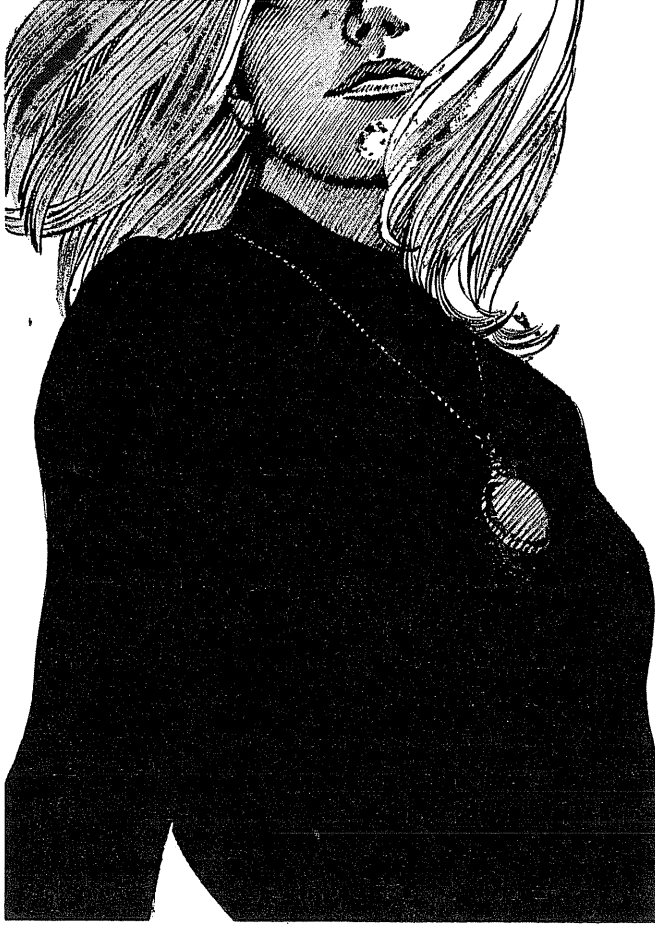
내가 숭상하는 나무는 나의 영혼

늘 성장하는.

그리고 쓰지않는 나의 시는

신께 퍼보일, 나의 음악.

박 목월의 “秘意”에서



## 미혼시의 과제

머린 디. 킬러

■ 말일성도 독신 자매들은 삶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기간을 교회, 사회 그리고 이웃에 기여하는 기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증진시키고 이 신앙에 의지하며 결혼을 영원한 생애의 끝없는 과정 중에 어느 때고 이르게 되는 이정표가 된다는 견해를 갖도록 배우므로써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미혼의 말일 성도의 여자가 복음의 영역 안에서 풍성하며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명량, 창의 그리고 긴 안목을 갖고서 보게 된다면 지속적인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말일성도의 여자들은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관찰하기를 배우고, 귀중한 시간을 자신의 자질의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속적인 헌신, 사랑, 봉사를 배우므로써 미혼으로 있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의 기간을 바른 영원한 반례를 기다리는 준비와 생산적인 삶의 기간으로 돌리는 것이다. 만일 하려고만 한다면 미혼의 기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은혜의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의 삶은 공허한 시간의 흐름으로 무의미하게 되지 않고 “창조적 대기”로 풍성해질 것이다.

결혼에 관한 관심은 말일성도 가르침의 관점으로는 일반적일 뿐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은 그 회원과 더 넓게는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인 가정 생활의 영원한 이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훌륭한 원리는 자주 강조되기 때문에 성숙한 말일성도 자매들은 대부분 결혼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노년까지 독신으로 있는 자매들은 (상향회의 영원한 가치의 밤과 성찬식의 이야기에서) 빈번히 이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이해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노년의 독신 남녀에게 가장 끈질기며 물리치기 어려운 압력이 있다면

아마도 독신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민감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으로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도는 좋으나 분별없이 말하는 친구와 친척들의 충고일 것이다.

이러한 압력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사람들의 제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일성도 독신 자매들은 삶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기간을 교회, 사회 그리고 이웃에 기여하는 기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증진시키고 이 신앙에 의지하며 결혼을 영원한 생애의 끝없는 과정 중에 어느 때고 이르게 되는 이정표가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여자가 독신으로 있는 것은 완전한 행복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믿으면서도 나이를 먹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면서 30대 혹은 40대에 이르게 되면 자기는 매력 없이거나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삶을 만성적인 의기저하의 상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독신 여자 중에는 의기저하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며 자신의 생활에 개입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만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면 도와 주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믿게 된다면 이 여자는 신앙 대신에 의심을 마음 속에 받아 들이는 것

이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요소는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의심을 품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의기가 저하되는 것은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의기저하의 정반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기도에는 필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치 않을 수도 있지만 결코 못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신앙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실행과 실천으로 습득하는 기술과 같이 키워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힘을 확실히 말해 주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7~11)

주께서는 현세에서가 아니라면 분명히 내세에 가서는 알맞은 때에 결혼하려는 의롭고 신성한 욕망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장기적인 관점 즉 생명의 영원한 견지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38, 48 혹은 58에 가서 적합한 영원한 반대를 찾는다 고 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의 생애 중에 영원한 원리의 시한에 따른 것이지 지나지 않는 것이다.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도서 3:1) 생애의 진정한 가치는 그 여자가 몇 살에 결혼을 하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른 생명에 축복을 주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신으로 있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생활하는 중에 성공적인 생활방법을 발견하며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존 밀튼은 그의 유명한 시 “실명에 부침”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봉사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서 있음”은 회미하고 비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도전하며, 준비를 갖추고 항상 깨어있어 주의 깊은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행복하며 보상받을 생활을 하는 독신 여자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 면에서 그들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맞는 것이다. (1) 생활에 참여하므로 독신으로서의 시간을 재능과 자질을 발전시키는데 들인다. (2) 다른 사람과의 다정하며 건전한 관계를 맺는다. (3) 결혼이라는 속박에 구애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한다.

“창조적으로 기다리는” 여자는 교회에, 생애에, 교육에, 혹은 취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보상을 하여 준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의 독신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많은 시간, 큰 개인적 자유, 커다란 기동성과 돈 벌 수 있는 능

력 등 기혼 여성이 즐길 수 없는 요소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 여성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장래의 가정을 마련할 사람으로서 그들의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은 여행, 신간 독서, 새 친구를 사귀, 지적 수준을 높이며 인간 자체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얻는 것 등으로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결혼 그 자체로서는 공허한 삶을 채울 수 없으나 충만하며 잘 영위해 온 삶은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한다는 전제에 자신의 생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다. 결혼 했거나 독신이거나를 막론하고 가까운 우정을 키워온 여성은 자기가 고독해 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결코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독신으로서의 기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장벽을 쌓는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옛 친구와는 유대를 깊게 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다. 우정을 돈독히 하려고 노력하는 여자는 그 결과에 만족함을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쉽고 즐거운 친교를 하기가 어려운 여자에게는 독신으로서의 기간을 주의 깊게 택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회관계에 있어서 주고 받는 데에서 배운 것, 즉 협상, 이해, 헌신, 외향성은 후에 결혼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 좋은 친구는 좋은 책이나 좋은 음악과 같이 삶을 자극하고 풍성히 하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다.

아마도 성공적인 독신 여성이 즐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주라면 무엇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확고한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그들은 때때로 봉사의 발전을 필요로 하며 온 시간을 쏟는 생애를 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병원, 성인단체, 혹은 특수 교육 센터에서 자원하여 일을 하거나 시간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신으로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타적(利他的)으로 주는 것을 배우는 기회는 가족, 친구, 급우, 혹은 이웃과 같이 긴밀한 것이며 결혼 생활이라고 해서 더욱 값있거나 중요한 특성이 있지는 않은 것이다. 사랑하며 봉사하는 경험이 깊어짐에 따라 헌신하며 복음을 좀더 풍성히 생활하는 능력도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번째 중요한 방법으로 그는 영원한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창조적 대기에 대한 철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은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 같이 영위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독신 여성은 자기가 바라는 여성이 되도록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독신 여성은 미래를 초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사랑하고, 주면서 살아가므로써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 호랑이를 만났을 때에

10살된 아들에게 띄운 아버지의 편지

존 웨르 랫슨

지난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네가 내게 물었던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몇 시간 늦게 도착하겠기에, 네게만 알리고 싶은 이 편지를 쓴다.

밀림지역에서는 교활한 호랑이를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과 호랑이가 대단히 큰 힘을 갖은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호랑이가 화가나서 으르렁거리며 뛰니까 너는 나를 돌아 보며 “아버지 사람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하고 물었었지.

사람은 호랑이를 만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호랑이는 너를 해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 그 밖의 모든 동물을 위협하는 호랑이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선 밤에 호랑이를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풀이나 나무가 울창한 곳을 피해 다니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호랑이를 정말로 만나고 싶거든 네가 철장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총을 가지고 코끼리 등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위험한 일이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은 두꺼운 코끼리의 가죽도 찢기 때문이란단다. 사람이 호랑이를 만나거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며 용기도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너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착한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나로 생각한다면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인도에 사는 호랑이와 같이 교활하고 간사하며 크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단다. 나는 이런 호랑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호랑이라 부르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호랑이는 정말 살아있는 호랑이와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를 끼친단다. 이런 호랑이는 큰 풀과 사람 키보다 낮은 관목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당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힘들단다. 이 호랑이는 사람의 생

명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호랑이와 싸우려면 너는 호랑이가 어디있는지 알아야하고 자신을 보호할 것이 있어야하며 강한 충을 갖고가는 외에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 편지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쓴 것이다.

너는 호랑이 사냥 규칙을 잘 알고 있으니 네 역량을 한번 시험해 보려므나.

### 첫째 : 호랑이를 찾으라.

나비와 곤충을 채집할 때 그 보통의 이름과 학명을 찾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기억하느냐? 호랑이를 찾아내는 것도 이와같이 어렵다. 호랑이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귀로 들어야 한다. 만일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며 또다시 네가 거절할 때 너를 "어린애"라고 부르던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한다면 이 때가 바로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만날 때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호랑이는 유혹한다. 너로하여금 나쁘게 생각하거나 행하도록 이끄는 생각이나 관념은 유혹의 호랑이인 것이다. 10살된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호랑이의 종류에는 "뿔내는 호랑이" "다른 사람을 따르는 호랑이" "난폭하게 되는 호랑이" 그리고 "물건을 훔치라는 호랑이"가 있다. "뿔내는 호랑이"는 네가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나쁜 짓을 하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따르는 호랑이"는 특별히 열살된 아이들을 좋아하니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것을 네가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가 어른들을 훔내내면서 난폭해지므로써 자유를 얻으려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난폭하게 되는 호랑이"가 네게 임한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반항하였다고 부른다. 열 살된 "물건을 훔치는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문젯거리란다. 열 살이 되었으니 너도 옳고 그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열 살된 사람들이 옳은 일만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호랑이는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없어져도 알지 못할 것이다" 혹은 "그것이 없이는 못 배기겠다"고 말할 때 우리 앞에 잠복하여 있는 것이다.

### 둘째 : 소리를 높이라.

네 몸 속에는 네가 배운 것을 간직한 은밀한 곳이 있으며 이 은밀한 곳에 있던 배운 것들은 네가 행동하는 동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이 소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것을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를 만나거든 소리를 높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 셋째 : 자기 견해를 가져라

너의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죽이는 것은 바로 네가 할 일이 될 것이다. 자기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할가를 정하는 것이다. 요사이 네 연령의 아이들과 같이 어렸을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네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 별명을 붙이며 뽀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마음을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호랑이는 나이가 먹거나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어떻게 이들을 다룰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장되고 성숙한 답을 필요로하는 질문을 계속하여 하고, 이 생각과 저 생각을 달아보며, 마음속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후 결정하라. 네가 시험하고 비교하며 결정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제거하는 능력은 장족의 발전을 볼 것이며 이 성장은 네가 성인으로 되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 넷째 : 너의 방패를 활용하라

이 방패란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네게 주시는 보호인 것이다. 만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안내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하시며 호랑이를 가두어 놓는 장 보다도 더 안전한 보호로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네 지상의 아버지로서의 나는 하나님은 네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확실히 말해 둔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옳게 행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 다섯째 : 용기로 무장하라

호랑이를 찾아 내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견해를 갖고, 너의 방패를 갖춘 다음의 마지막 규칙은 확신의 용기로서 호랑이를 죽이는 것이다. 때때로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정숙히 하는 것도 잊지 말라.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옳은 것을 하는 것은 소년과 어른을 나누는 표준이 된다.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보다는 친구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태나 군중에 휘말리면서 명성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것을 하는 용기는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네가 성장했음을 보이는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책임있는 태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커다란 경험이다. 우리는 너와 나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 어머니와 내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가 놀랍게 들리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추신 : 누이동생과 그 동무들을 놀린대는가, 네가 하든 대로 비누상자에 올라가거나 허가없이 밖에서 방황하는 것은 네가 그만두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 새끼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추신 : 나는 네 어머니에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어린애 취급을 하며 입맞추지 않도록 이야기 하겠다.

# 미국 동부에 신전이 생기다

알버트 엘. 죠벨이세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여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하셨나이다.

예언자의 커트랜드 신전 기도문  
(교리와 성약109편 8절)

교회에서는 워싱턴 디. 씨. 근교의 메리랜드 실버 스프링 가까이에 신전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지역은 워싱턴의 록 크릭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백 이십 피트 높이의 지형으로 외따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968년 11월 15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내관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신전을 필요로 했던 지역에 이와같이 주님의 집이 하나, 둘 지워진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시마 있었다.

신전이 세워질 57.4에이커의 땅은 1962년 85만불에 매입한 바 있었다. 이 넓은 땅은 워싱턴의 행정구역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미개발 지역 중의 하나이며 세 곳의 큰 비행장과 철도의 연결도 쉬운 곳이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으며, 주위의 도로는 뉴욕, 뉴 잉글랜드, 미드웨스트,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공로와도 연결된다. 12선교부와 38개의 스테이크에 속해 있는 미시시피강 동쪽의 23만 8천명의 회원들은 다같이 “나의 신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신전 가까이에는 그렇게 많은 회원이 살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일성도

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신전은 멀리 남미와 동부 캐나다 등지의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내려질 것이다.

워싱턴 지역은 완전한 신전사업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기록들이나 계보자료들을 찾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2사도 정원회로부터 필라델피아 지역(필라델피아 포토맥,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크) 지역책임 임을 위임 받은 메리랜드 캔싱턴 출신의 로버트 떠블유. 바커 장로는 말하기를 “이 지역 안의 교회의 모든 역원이나 회원들은 이 나라의 수도인 워싱턴에 신전이 세워지도록 결정한 대관장단의 결정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지역의 회원들과의 접점에서 교회의 젊은이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만큼이나 열광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쪽의 모든 스테이크 부장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많은 회원들이 신전엘 가기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며 엄청난 비용을 써야 했었으므로 이 새로운 신전의 결정에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신전은 교회에서 열여섯째로 세워지게 된다.



## 여호와와 나의 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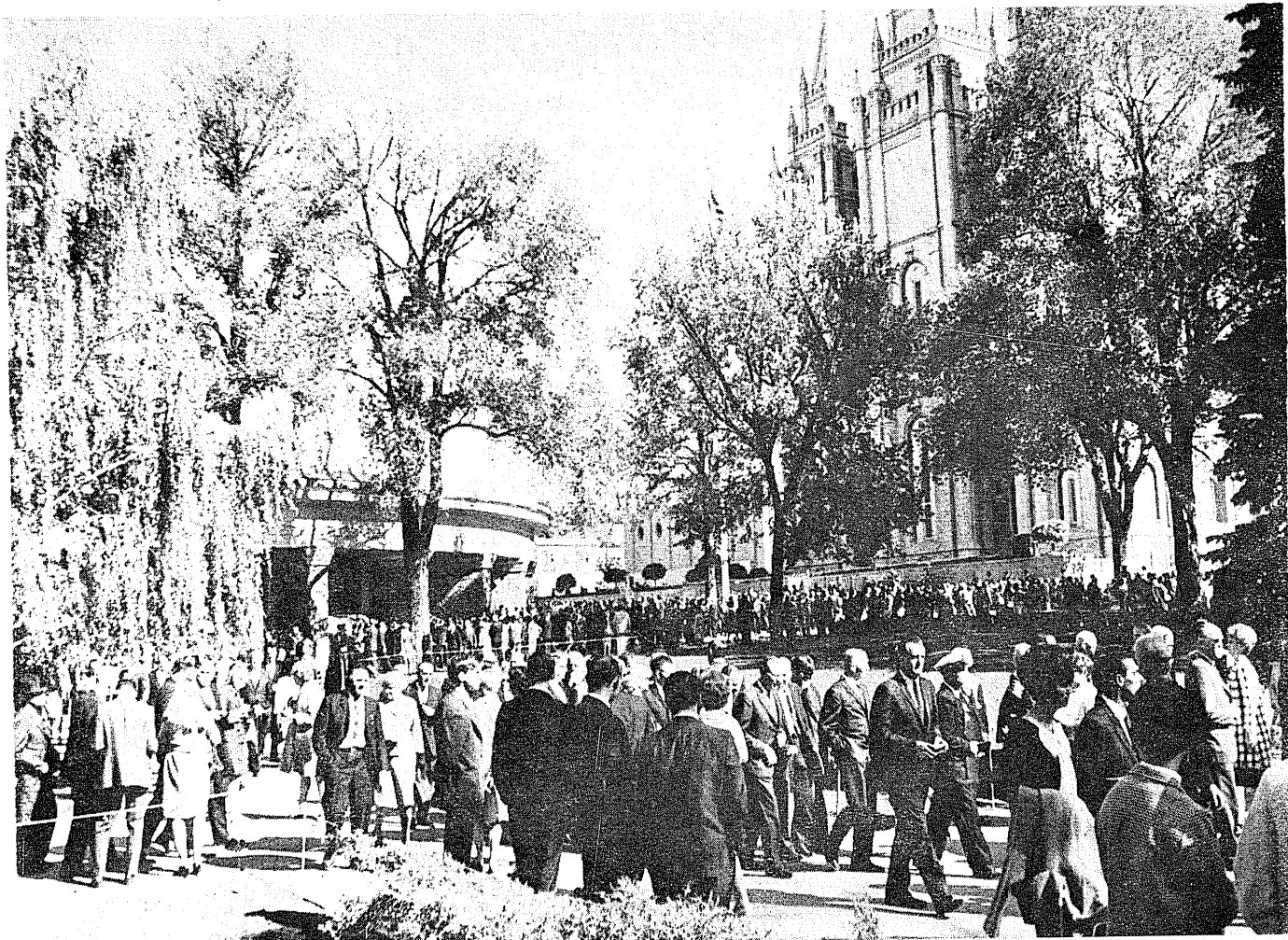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키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나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제23편

# 특별 부록

## 제 138차 반 연차대회의 말씀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1968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제 138차 반 연차대회의 말씀입니다. 전호에 이어서 소개합니다.



성도들은 대회를 이용해서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

###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함

대관장단 죠셉 필딩 스미스

1968년 10월 6일 주일 아침에 제138차 교회 반 연차대회에서  
대관장단의 죠셉 필딩 스미스 부대장관께서 하신 말씀 전문

저는 이 모임과 대회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여러 형제 자매님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진정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의 저의 생애 대해서와 전 인류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에 찬 염려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된 이래 이 땅 위에 내려 주신 자비와 축복의 여러 시련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고,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승화시키며, 세상에 빛과 진리를 가져오며, 지상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생활하는

해서 인간이 모든 재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교”란 언젠나 마찬가지로 물론교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하려 하는 모든 인간에대한 또는 구원에대한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노니, 말일성도들이란 그들의 이름과 부름과 복음에 대한 이해에 진실하며, 진리와 명예와 덕과 생의 순결을 상징하며, 사업과 종교상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과 지상에서의 그의 의와 그의 진리와 그의 사업과 인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을 알리고, 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인간을 구하고 악으로부터 멀리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생애의 구원에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 자신에게 유효하게 하며, 의롭게 일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필요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머리를 숙이게 될 만큼 교인의 수가 불어나 구세주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게 될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구속과 산 자의 구원을 위하여 말일에 계시된 바 주님의 율법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에 대하여 추호의 적의나 악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으며, 적에 대하여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감정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우리와 우리의 적에대한 심판을 맡기며,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결국 온 세계를 부풀게 할 누룩에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편견과 야망과 소망과 기호를 짓혀 놓고,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복음의 영은 인간을 의로 이끌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일하게 하며,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죄의 모양까지도 피하게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 생과 내세에서의 인간의 영원한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즉, 참된 종교의 열매는 평화, 사랑, 덕, 정직, 고결함, 그리고 주님의 율법으로 알려진 제원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잘라디

아서 5장을 읽어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열매와 세상적인 사물의 결과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론주의”와 세상에 널려 있는 신학 간의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명령 하심에 따라 생활하고 그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결국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사업은 더욱 더 크게 퍼질 것입니다. 지난날 보다는 앞으로가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이를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서 성장하며, 널리 퍼지고, 이 지상에 뿌리를 박고, 주님의 말씀과 권능에 의하여 주님께서 씨를 뿌리신 곳에 거할 것이며, 결코 멸함이 없이 전능하신 분이 뜻하신 바가, 즉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언자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원칙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말일에 이 지상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과업이며, 그는 이것을 진리와 의의 원리와 순결한 생의 원리 위에 세우신 것으로, 대부분의 교인이 주님과 맺은 성약에 거하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순결하고 흠없이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국민도 신성한 진리에 거하지 않는 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강력하므로 앞으로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끈 적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 스미스 당시에 그랬고 부리감 영 당시에 그랬으며 그 이후로 언젠나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며 이 일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서는 어떤 사람도 명예심을 갖지 못할 것이며 지금까지 권위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인간의 일이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사실 무근한 것이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그와 떨어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집에 계실 때 해야 할 일을 잊고 하지 않은 것은 없으십니까? 버릇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고 계실 때에는 이런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이나 또는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나 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내리 주신 주님의 자비로운 은사를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

리십시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완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완수하신 것은 그의 권능과 인도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 주님의 손 안에 든 도구이며 인간이 그러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명예를 돌리기는 하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완수한 연고로 인간에게 명예를 돌리면서 인간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주님에게 영화를 돌리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과업을 합당하게 단축시키시어 그가 정한 시간내에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는 우리 앞에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복음의 원리를 얼마간이나마 알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가질 수 있음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이 인간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바 있으며 세상의 여러가지 사실을 보았으나,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복음은 이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식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교회에서도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살아 계시며 언제나와 같이 오늘날도 그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으며 그의 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 : 37~38)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충고의 말씀이었으며, 그들이 그에 순종하는 한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간증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할 일을 알게 되어 주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현 상태를 주시해 본다면 이 세상의 평화는 그리 쉽게 올 수 없으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평화를 도모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이 지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일과 그가 요구하시는데로 따르기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신권도

다시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두가지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상한듯이 이를 쳐다 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쓰여진 책에 구애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간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위대한 말일의 과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하고 영화로운 과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로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면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자유의 율법으로서 이는 인간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며, 인간이 주님께서 인간을 인도하도록 명하신 자들의 말씀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혜택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것에 대하여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단 한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며, 모든 인간은 인간의 수집물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그의 영을 구하고, 구세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도록 안수례를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추호도 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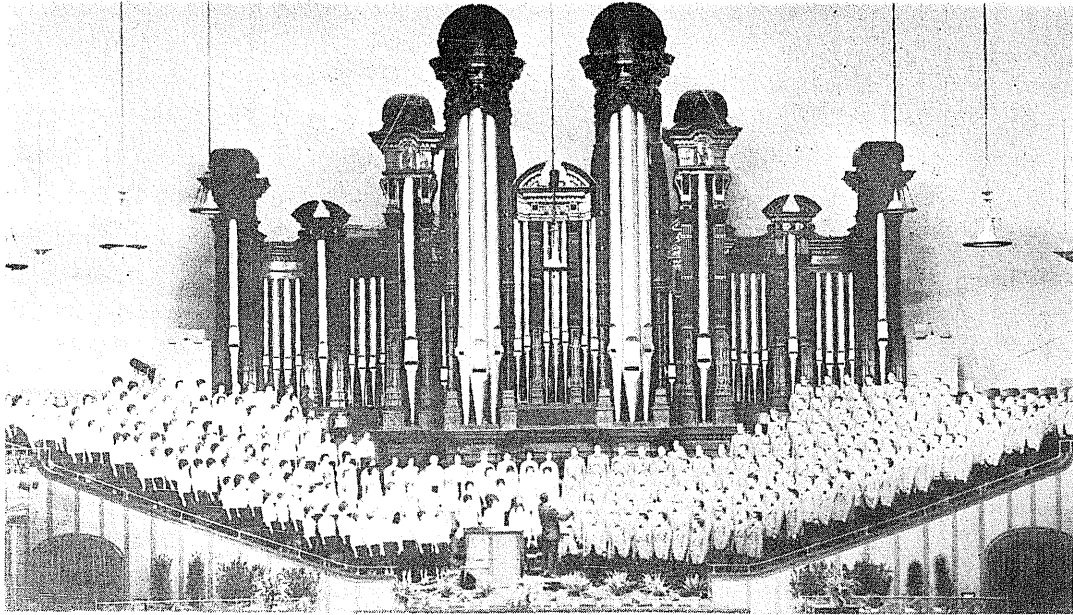
이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이 과업에 대한 간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며 주님은 살아 계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처럼 여러분은 모든 말일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날 이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시실 것입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이며,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이나 은사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가치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저에게 신앙이 있다면 해의 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은 성결케 되어 하늘에 속한 자들이 거하기에 합당한 장소가 될 것이며, 복 천년이 되면 주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곧 구원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앞날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을 갖고 겸손하게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

앙에 따라 삽시다. 육체의 약점을 벗어 버리고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과 그의 진리로 향해 나아가며, 신앙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굳건하게 나아갈 결심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테버나클 합창단의 전경

## 미국의 운명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다

대관장단 알빈 알. 다이어

1968년 10월 6일 일요일 아침 제138차 교회 반 연차대회  
에서 대관장단의 안빈 알. 다이어 장로가 하신 말씀 전문

오늘 저는 미국의 운명을 예로 들어서 미국의 운명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나라 건국 이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하여 역설해 왔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미국의 위치와 더불어 이러한 원칙을 전 세계에 전파시켜야 하는 미국의 운명에 대하여 역설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증거하였으며, 미국은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자유란 어떤 사람으로부터 빼앗거나 줄 수도 없으며, 살 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선조들처럼 자유란 용기와 희생으로써 추구해야 하며 이와같이 자유

를 추구하지 않을 때 이것은 본국에서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미국의 운명을 정치적으로 분석해 불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콜럼버스의 배가 미 해안에 닿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독립과 더불어 창립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그 목적과 운명에 관련된 사건의 발단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참 운명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 종교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창건기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자신도 미국의 헌법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영구히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 나라가 설립된 정치적인 면에도 위대하고 고귀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참된 의미는 영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창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였으며 참고 삼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밝혀 보겠습니다.

첫째 : 미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주신 성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 거주하였던 이 지파의 잔류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땅에 세워져 아버지의 권세로 자유의 백성이 되며,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저들을 거쳐 너희 자손에게 전달되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인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라.” (니파이삼서 21 : 4)

둘째 : 미국과 그 헌법은 도덕적인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인류에게 보급시키기 위하여 창건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백성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당국에 간절히 청원하라. 이 법률과 헌법은 내가 허락하여 저들로 제정하게 한 것이요, 공경하며 신성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것인 즉,

이로써 내가 준 도덕적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미래에 관한 교리와 원리에 알맞는 행위를 하게 하며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서로 속박함은 옳지 아니하니,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피 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축하였느니라.” (교성 101 : 77~80).

여기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 땅에 온 사람들의 후예로, 그들이 이 땅으로 옮겨와 정착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약 즉, 약속과 상속의 땅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경을 보면, 야벳 족속은 바벨탑 시대에 이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기원전 2,200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때에 사람들의 언어가 혼돈되었습니다. 이 탑은 현 이ラク의 바그다드시 남서쪽과 유우프라테스강 동쪽 쪽에 위치한 힐라라는 곳에 있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드넓은 광야에 급수탑처럼 서 있는 벨스 님누오라고 하는 고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로린슨은 피라밋형의 고적에 쓰여 있는 비문은 “일곱 천체의 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탑이 바벨탑의 잔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야벳 형제들은 먼저 북쪽에 있는 니므롯 골짜기로 내려갔으며, 많은 호수와 강을 건너 다음 결국 대륙을 갈라놓은 큰 바닷가에 이르러, 위대한 지도자 야벳 형제를 따라 모리엔쿠머라 명명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이더서 2 : 1~6 참조)

주님께서서는 야벳 형제들이 대양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잠수선 건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모리엔쿠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이라.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을 쓸어 없앨 것이요, 저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하리라. 보라 이 땅이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쓸려 없어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질 때에 쓸려 없어지리라. (이더서 2 : 9~10)

약 1600년 후, 즉 기원전 600년에, 리하이라는 예언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멸망될 지경에 놓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 세기 전의 야벳족속과 같이, 리하이와 그의 무리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띄우기 전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번성할 것이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곳은 너를 위하여 마련한 곳이라. 어느 땅보다도 으뜸이 되는 곳이라.” (니파이일서 2 : 20)

드디어, 많은 간고를 겪은 후에, 주님의 지시대로 지은 배로 대양을 횡단하는 위험한 여행을 하였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보다 약간 많은 수가 되어 기원전 589년경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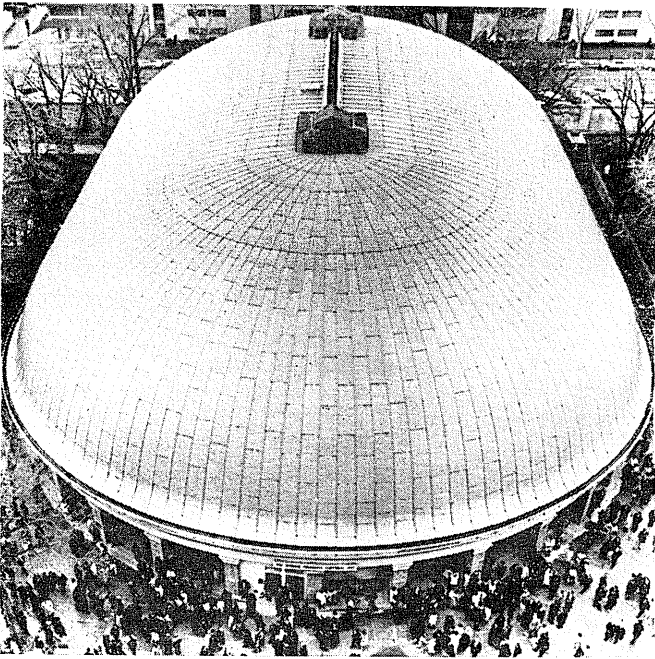
후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기는 하였으되, 모든 땅 중에서 으뜸이 되는 약속의 땅을 얻었노라. 이 땅은 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상속의 땅이 되리라고 내게 언약하신 땅이라. 진실로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나와 내 자손과 다른 땅으로부터 주님의 손으로 인도되어 온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느니라.” (니파이일서 1 : 5)

유럽과 영국에서 종교개혁과 자유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한 바닷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미대륙을 재발견케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1492년에 약속된 땅에 이르는 통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 니파이족, 혹은 야벳족은 미국의 원





대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옥외스 피카를 통해서 대회순서를 듣게 된다.

래 발견자라 할 수 없으며, 그들이 미국의 운명과 목적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운명은 지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와같이 선택된 사람들이 지시를 받고 인간 역사의 시작이 된 이 대륙에 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신 후, 부활하신 몸으로 미대륙에 있는, 다른 무리의 양을 방문하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이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미국이 세워지리라는 것과 그의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상에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오리라고 하나님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주님은 이 위대한 대륙의 거룩한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어 이스라엘의 백성인 나의 백성들을 오래 흩어져 있던 곳에서 다시 모으며, 저들 가운데 나의 시운을 일으켜 세우는 때를 알게 하리라. (니파이삼서 21:1)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중에 미대륙을 전 세계에서 물려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에게 줄 상속의 땅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날에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잔류민들이, 동서남북 사면에서 함께 모여 저희를 구속하신 주 저희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의 땅으로 주라고 명하셨으니, 보라 이 땅 위에 이 백성을 세우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야곱과 맺은 언약은 이루려 함이라.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하늘의 권세가 이 백성들과 함

께 할 것이요,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라.” (니파이삼서 20:13, 14, 22) 미 대륙을 “선택된 땅”이니 “성별된 땅”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에 인간을 세워 놓은데 대하여, 예언자 모세가 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한 정원을 창설하고 내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모세서 3:8)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조력자 다시 말해서 여자를 그 옆에 두어 남자와 여자가 그 정원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으며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창조의 과정 중에서 제 삼기에 전 지상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에는 마른 땅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 봄이 좋을 것입니다. 땅은 육지라 하고 물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마른 땅 또는 육지는 에벤이라는 다른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살던 곳은 에덴의 동쪽 다시 말해서 마른 땅의 동쪽이었습니다.

태초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벨렉의 시기 다시 말해서 기원전 2200년 경에 태초로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의 대륙이 분리되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위치는 그 중심지가 미쥬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라는 사실이 계시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북쪽으로 100마일 쯤 못 되는 곳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아담 온 다이아만이라는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담과 이브는 아들과 딸들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지상생활의 터전을 정하고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드리는 재물로 가족의 첫 새끼를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그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정해진 때에 이 지상에 오실 주 그리스도의 희생의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므로써 그들의 앞에서 사라져 버렸던 구원과 승영의 복음 계획이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좇아 “복음을 다스리며 왕국 신비의 열쇠와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열쇠까지 갖고 있는” 성신권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 가족의 위대한 선조인 아담에게 “구원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주 즉 아만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타락하여 육체적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되었으나, 결국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구원의 열쇠”를 받을 때 구원의 상태가 그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 온다이 아만”이라는 말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이신 “아만”으로부터 “온 다이”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와 그리고 지금 주어진 계시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서는 전생애 “미카엘”이란 이름의 아담에게 “구원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과 이것이 주어진 목적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면류관을 얻고 많은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 하나님 곧 아담 온다이 아만의 기초를 닦아 놓으신 시온의 거룩하신 이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미가엘을 너희 왕으로 명하사 저의 발을 굳게 세우시고 높은 곳에 앉히시며 구원의 열쇠를 저에게 주시고 생명의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날이 없으신 거룩하신 이의 권고와 지시를 받게 하셨느니라.”(교성 78 : 15~16)

“...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맞아 라이기에 필요 불가결의 것임이라. 이 경륜의 시대는 이제 맞아들이기 시작되었으니, 이 때에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이 결합되어야 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이 분명하게 들어나야 하느니라.”(교성 128 : 18)

이 계시에 의하면 말일의 성도들이 아담 온다이 아만에 정착한 이유를 알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들이 그곳에 거주했던 결과, 진리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의식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인간이 지상에 존재했던, 매우 성스럽고 중요한 그 기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 의하여 우리는 태초에 아담 온다이 아만 계곡에 이주한 일을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죽기 삼년 전에 대제사인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드두셀라 및 다른 의로운 그의 자손 모두를 아담 온다이 아만 골짜기에 불러 그곳에서 마지막 축복을 저들에게 주었더라.

이 때 주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시니, 저들이 일어서서 아담을 축복하며 저를 미가엘이요, 왕자요,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이 때에 주께서 아담에게 위로하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머리로 세웠으니 모든 국민의 무리가 네게로부터 나올 것이요, 너는 영원히 저들의 왕자가 되느니라 하셨더라.

아담이 연로하여 이미 허리가 굽었으나 성신으로 충만하여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마지막 세대까지 그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다 예언 하였더라.

이 모든 일은 에녹의 책에 기록되어 있나니, 때가 이르면 입증되리라.”(교성 107 : 53~57)

아담과 그의 의로운 자손의 이 가족 회의는 대략 기원전 3177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같이 여기서 인류의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성약이 첫번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대륙은 다른 나라 중에서 선택된, 약속받은 땅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말일의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시기 위해 선택하신 땅이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주님의 시대에 뒤이어, 땅과 물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역시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시온에서 음성을 발하실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려니, 저의 음성은 모든 백성에게 들리리라.

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요, 큰 번개소리 같으리니, 산을 허물어뜨릴 것이요, 골짜기를 찾아 볼 수 없게 하리라.

또 큰 깊음에게 명하여 북쪽 나라로 물러가게 할 것이요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며 땅은 나뉘이기 이전 시대처럼 되리라.

그리하여 주 곧 구세주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서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리라.”(교성 133 : 21~25)

시온인 미국은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 중에서 선택되었으며 시온이 세워질 “중심지”인고로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독립을 성취하고 헌법을 제정한 그 유명한 선조들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땅이요, 하나님의 성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룩하신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절정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집합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시온 땅 미국의 운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하여 주님이 그의 백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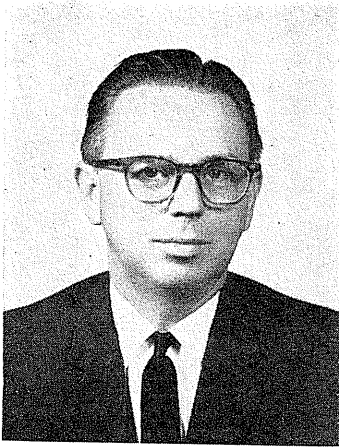
“그러나 먼저 나의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 내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훌륭하기 해갈고 분명하기 달갈게 하며 그기는 만국 백성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교성 105 : 31)

저는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이룰 수 있는 힘

선교부장 서 현 보



이제 막 우리는 미국 우주인 세 사람의 놀라운 모습—저들이 달을 선회한 다음 다시 대기를 뚫고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면서 안전하게 지구에 되돌아와 착륙한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큰 용기와 철저한 계획과 대부분의 인간이 알지 못하는 평범 이상의 지식을 수반함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달을 완전히 정복하자면 이보다 더한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의 공간을 치달리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그의 창조하신 지구를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모두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신 절대자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생활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만 하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가하셨다고 하는 즐거운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1: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인간의 달성이나 업적은 참으로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이룰때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느니라”라던지, “물 가운데 단단한 땅이 있으라 하신즉 이와같이 되었더라”(창세기 1:6~7)라고 성경 구절에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힘을 우주인들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묘사한 어휘 중에 “전능자”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관찰하시고 태양 빛을 다스리시며 바로 그것을 만들어 낸 그 힘과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교성 88:7)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는 빛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밝히는 빛까지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교성 88:11)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나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도다.”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비롯한 이 권세를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며 그의 전능한 권세를 함께 했던 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가 가르치고자 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바 권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의로운 가운데는 힘이 있으며 믿음 가운데도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말 일성도는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형제애를 나누며 영원한 구원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많은 성도가 직접 교회를 관리하는 역원으로의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역원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공공 사회 단체나 국가 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허가 받거나 그밖에 단체에서 일 할 기회를 얻게 될 때 대개 우리는 우리가 받는 직책을 수행함에 필요한 일종의 권세를 받게되며 우리는 이 권세를 다만 임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

에 있어서도 이 원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하나님 왕국 건설에 필요한 권세가 주어졌고 이 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 달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여러분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임무와 권세를 연결하여 함께 일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스틸링 실 장로는 그의 최근 저서 “믿음의 힘”에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데서 비롯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던지, 두려움, 나쁜 습관, 죄 등을 극복할 만큼 우리가 늘 굳건한 것은 아니어서 자칫하면 비틀린 열등감 내지 부정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이와같은 위축된 태도는 스스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뿐만 아니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로서의 긍지라던가, 술선력 내지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저해 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큰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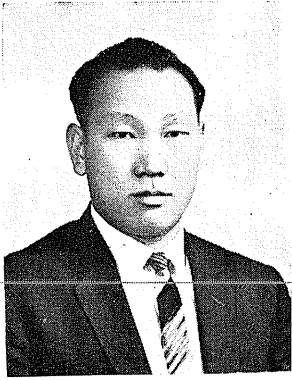
우리의 개개인의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함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시었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다만 헛되이 방황하다가 실패로 인생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급년에는 더욱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인 교회사업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마크 이. 피터슨 사도님의 비결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그는 “교회 활동(생활)의 열쇠는 거듭남이니, 거듭남이라도 셋을 합친 것이라야 합니다. 그 첫째가 개개인의 간증을 위한 복음지식 습득으로의 거듭남이요, 둘째가 부름에 모두를 바쳐 헌신하겠다는 일군으로의 거듭남이요, 셋째가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고 정리하는 효율적인 원리로서의 거듭남입니다”라 하셨습니다.

과연 훌륭한 계획이요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가지 의미, 곧 개인으로, 교회의 일군으로서 임무를 가장 효과있게 완수하기 위하여 일하고 배움에 있어서 거듭 낚는 가를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가지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될 때 1969년이 다 가기전 한국의 말일성도는 대한민국 백성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는 주의 사명을 이행함에 있어 보다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중앙지방부장 차 중 환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

세상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과 불평 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전과 같은 대궐에서 사는 사람도 불만 뿐이요, 오막살이 집에서 살면서도 화평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다가 작은 굴곡이 하나만 있어도 이를 불평하고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길이 험하고 순탄치 않아도 늘 감사한 가운데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신앙이 약한 자의 소행으로 봅니다. 약한 자는 자고로 강한 자 보다 불평 불만이 많으며 이들 불평 불만으로 인해 자학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음이 굳세면 불평과 푸념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평은 감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백열등, 축음기, 활동 사진기 등등을 발명 한 인류 문명의 대 공헌자 에디슨은 열차 안에서 실험하다가 주의 부족으로 인한 폭발로 열차 승무원에게 매를 맞아 짧은 날에 귀머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인 불행에 처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분발 분투했으며 그는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치 않았으며 그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고 축복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주님께 귀가 어두어 주위의 잡음을 듣지 못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감사치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히 보이며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전 5:18)

대구지부의 어떤 회원은 회원간에 불평 불만이 있음은 육감으로 느꼈으나 귀가 어두어 듣지 못함을 감사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정신도 발명왕 에디슨과 같은 정신이요 같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불구자의 이런 정신과 신앙을 본받아 신체의 결함이 없는 자는 건강함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편히 살 수 있고, 자전과 공전에 의해 밤과 낮이 있고, 철따라 꽃피고 새울며 아름다움이 전개되는 풍경을 감사드리며, 만유인력에 의하여 우주의 질서정연함을 볼 수 있고, 물로 인생을 보호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고 바다와 강물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우리의 부식이 되는 많은 해조류와 어류가 있으며, 마음껏 무상으로 마시고 배

출할 수 있는 공기가 있음을 감사드려야 하겠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성경에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귀한 감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주님과 관련시켜 주님의 축복으로 보고 감사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조건은 간단한 것입니다. 불만에 자기가 속하지 않으며 불만으로 해서 자기를 확대하지 않으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불평에 끝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방해꾼도 많고 사탄도 원수도 많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유쾌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목표에 충실하고 묵묵히 한 길로 꾸준히 나갑시다. 그리고 불평을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부터라도 불평이 생기면 이를 억제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기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성도가 불평불만, 험담,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 지능적인 교회 질서의 파괴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받은 축복을 망각하고 감사한 생활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성도들이여, 범사에 감사하고 인화단결할 수 있는 사회인이요, 교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아니 행동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독일의 시인 레이니크는 “말만의 감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름다운 음향을 전하며 행동으로 감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칙목 가운데 사랑이 넘친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냅시다.

특히 감사드려야 할 것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로 인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부름에 감사히 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주님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끝으로 주님의 영이 성도들과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의 벗  
 一九六七年  
 二月一日  
 발행(매월一回) 일 발행

\*

리차드 엘. 이반스

진리의 말씀

어느 곳에서도 그대와 같이 함

인생의 기간, 삶의 목적—생명,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망, 우리를 떠난 사람들의 소재, 사랑하는 사람과 피치 못하게 헤어져야 하는 나 자신—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우리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잃은 사람과 우리가 잃을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하여 “육체와 함께 영이 죽는다고 생각할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라고 아더 에이취. 콤프튼 박사는 이야기하였다. “...우리(과학자)는 우주 체계에서 인간은 배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믿을 강한 이유를 알고 있다... 고상한 사람의 성품을 갖추는 데에는 일생을 요하는 것이다. 젊은이의 단결과 수양, 성년의 노력과 실패, 노년의 고독과 평안—이러한 것들은 자기 영의 순금을 만들기 위하여 거쳐야만 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하여 완전히 된 사람에게 자연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멸망시키겠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노고는 무한한 낭비가 될 것이다. 하늘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신 한 하나님께는 영생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지식이 이성으로 충만하고 이성이 신앙으로 충만한 유명한 과학자가 이와같이 말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당해 보았거나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많은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아는 당신에게는, 언젠가는 이 생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당신에게는 사랑하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 목적, 그리고 문자 그대로 생명의 영원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화평과 목적을 주셨으며 이 확신으로 우리의 회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니 우리가 그곳으로 갈 때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며 가족과 친구가 모두 있는 것을 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928년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 아더. 에이취. 콤프튼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중앙 방송국 제 2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미군 방송)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

정가 50원